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 7, 8

저/역/사/외/탁/아/스/연/접/외

1995년 6월호 첫발 92.5.25. 통권 31호 발행인 최현숙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 7, 8



자/역/사/목/적/아/소/연/업/목

1995년 6월호 첫발행 92. 5. 25. 통권 31호 발행인 최현숙

짜 · 임 · 새



<표지 사진>

대체 어른 따라 집회에 나
선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
가 보장하겠노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무책임에 어른
것들만 희생되니 부끄럽기
만 하다.

일하며 생각하며 / 3

비오는 날의 단상(斷想)들

임혜숙

저상경연 / 5

부부갈등의 효율적인 해결

유은희

기획논단 / 9

6.27 지방자치선거, 여성단체는 어떻게 움직였나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논단 / 17

지방자치선거 이후 민보련 활동방향에 대해서

최현숙

서평 / 21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김윤주

좋은 그림책 소개 / 25

기획연재 / 27

해화동 '나눔의 집'

변미양

기획연재 / 31

연극이야기 -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이우연

아이들과 지내며 / 33

너무나도 천진한 아들 키우기

이의숙

조카와 함께

신정숙

우리네 아이들

95.7,8월호

<통권 32호>

여름철 특집 / 43

구로지역 교사 답사모임

올 여름엔 떠나보자!

연장보고 / 45

조선경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심포지움을 다녀와서

작은 계획 / 53

김설이

"오늘은 원곡공원 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55

건강하게 삽시다 / 56

이흥진

감기와 감기의 합병증 -1

서사말뚝이 / 59

더 이상 이성을 지킬 방도가 없다

글마당 / 61

[대가어린이집]편

탁아소별곡

탁아계몽향 / 63

소식과 소식 / 65

벽록시장 / 67

편집부에서 / 68

■ 일하며 생각하며

비오는 날의 단상(斷想)들

임혜숙 / 본 회 초대회장

現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공동대표

95년 7월 9일.

작은 아이들은 돌아간 지 이미 오래고, 큰 아이들(자원교사)도 모두 돌아가고 난 텅빈 방 안!

적막이 흐르고 내 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의 흔적을 더듬는다.

게시판의 내용물이 바뀌었다. 현재의 나의 모습, 10년후, 20년후의 모습이 차례로 그려져 있는 국교부 아이들의 작품.

20년 후의 모습들이 간호원, 소설가, 경찰관, 화가, 주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림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다. 이 아이들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똑같지는 않았을텐데..... 웬지 자꾸만 학교가 아이들의 개성을 망쳐 놓은 것만 같아서 그림 속의 아이들이 측은해 보인다.

그림 밑에 써 있는 아이들의 이름과 2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동안 아이들이 재잘재잘 거리면서 그림 그리는 장면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후드득 후드득! 썩아!"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져 내린다. 방문을 여니까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 공부방은 후암동의 낡은 적산가옥에 세들어 있는데 본체는 제품(옷)공장이고 좁은 담을 돌아 뒷편에 슬레이트로 영성하게 가건물로 지은 곳이어서 제법 싼 값에 월세를 주고 사용한다.

방문을 열면 바로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발이 젖을까봐 한쪽으로 들어왔다. 이웃집 담을 넘어 삐죽삐죽 흘러 넘어온 담쟁이덩굴이 물기를 머금고 한들거린다.

"타닥 타닥 타닥..." 방 밖에 오른쪽 제법 큰 라일락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사뭇 경쾌하다.

나뭇잎이 비를 만나면 기뻐 춤을 추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춤을 추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취해 멍청히 앉아 있는 동안 사정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더 이상 방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

방문을 닫고 주방을 거쳐 내 방(골방)으로 오는데 주방 쪽에 "뚝뚝..." 빗물이 떨어져 이미 흥건히 고여 있었다.

"어휴! 그럼 그렇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붕이 안 썰 리가 없지!"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나 떨어진다.

그릇을 얼른 받쳐 놓았다. 흥건한 방바닥의 물기를 닦아내며 또 옛날 생각이 났다.

지금의 힐튼호텔이 있는 자리는 80년도에 양동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가 있었고 그 탁아소는 허름한 건물의 옥상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었다.

비만 오면 아이들과 교사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 깔깔대며 웃곤 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하던 나는 밤에 자다가 비를 만나면 물에 동동(?) 떠 다녔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얘기다.

85년 5월 나는 양동철거를 경험하면서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감상이나 봉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일하는 동지를 찾아야 한다고 깨달은 것은, 양동철거 후 회현동의 구석방에서 100여일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던 때였다.

그냥 그렇게 양동의 군상들처럼 쓰러져갈 수 없었다.

또 다시 이를 악물고 자리를 떴고 일어나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아동교사회"의 소중한 우리의 동지였다. 그때 만난 10명 내외의 사람들을 나는 애석하게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유인즉슨 나에게 두가지 병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노인성 치매 중 전망증후군"이라는 병식 때문이다. 농담이 아니다. 그 시절에 후배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 왜 수첩에 안 적으세요?" 하고 농반 진반으로 날 놀리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말이다.

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세지고 천둥이 계속 울려댄다.

그릇에 받쳐둔 물을 수채에 붓는 시간차가 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번 장마에 또 산동네 오르막길에 축대들은 또 얼마나 무너질꼬. 제발 사람은 좀 다치지 말아야 할텐데..

도무지 이 도시는 얼마나 더 무너지고 폭발해야 되는 것일까? 불행한 도시여!

어른들이야 어차피 나이 먹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찌나!

어딜 가나 콘크리트 시멘트벽 뽀, 그것도 함량 미달인....

그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혼과 정서는 병들고 매말라만 간다.

나뭇잎이 빗방울을 만나서 춤추듯 우리 아이들을 환희에 춤추게 할 수는 없을까?

온갖 유해음식을 사주면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닌,

요사스럽게 생긴 인형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닌,

시험 잘 보고, 상 받아서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닌,

자연과 참생명을 만나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희열의 맛을 느끼게 할 수는 없는가?

오늘밤 저 비가 멎기 전에는 잠 자기는 다 그런 것 같고 차분하게 앉아 궁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 지상강연

부부갈등의 효율적인 해결

유은희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사유들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 부부간의 성격차이, 부부의 역할 기대에 대한 상호간의 심한 차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혼 당시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왜 어떤 가족은 행복한데 어떤 가족은 배우자가 있으나마나한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끝내버리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룩하는데는 단지 '내가 많이 사랑해주면 될거야'하는 식의 막연한 관념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적극적인 대처 중의 하나가 부부간의 차이를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성격, 성장 배경, 생활습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의 차이를 극복하여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이 오랜 세월동안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면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부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해 오는 것이다.

"40대의 어느 부인은 전신이 쑤시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 보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병이 없었다. 그리고 부인이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가거나 하고 놀러 갔을 때는 전혀 아픈 것을 못 느꼈다. 이 부인의 경우 결혼생활 1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댁이 어려워져서 전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자주 그만 두곤 하여서 주로 부인이 여러가지 장사를 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다. 이제 아파트도 사고 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 그러나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고생해 왔지만 그녀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고 부인은 강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가족들이 그녀가 지나치게 자기주장이 세다고 하면서 비난한다. 이제 부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억압되었던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싶어하였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일하는 존재로만 취급하고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녀의 심리적인 갈등과 허무함이 신체적 병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배우자의 가출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행

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도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도덕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무엇인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배우자의 외도에 접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현명하게 결혼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려면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혼외관계에서 무엇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부부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부일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한번도 없었던 부부는 없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당황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여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부부관계가 이혼하는 위기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동안 심각하게 결혼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이들이 이렇게 10년, 20년을 싸우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 인내심이 많다. 즉,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면서도 동시에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주로 사용해온 방법은 갈등회피적인 방법과 경쟁적인 방법이다. 즉, 갈등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그런 부부갈등의 원인을 '배우자의 성격이 자기 중심적이라서, 포악해서, 미성숙해서, 집안내력이라서...' 하며 배우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부부간의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애 낳고 지나다 보면 낳아지겠지,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철이 들면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불만이 누적되어서 가끔 폭발하여 크게 싸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결혼관계는 악화되기 마련이다.

또 다른 한가지 유형으로서 부부가 갈등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서로 각자의 입장이나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오기를 요구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자신이 변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남편이 원하면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말을 안듣는다."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요,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또 부부갈등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부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 뜻에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로 부정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가출도 해보고 별짓 다 해보았는데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통제 방법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할 때는 어떠한 경우인가?

여러분이 진실로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분의 어떤 점이 좋은가? 만약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왜 당신은 그분의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 내가 어떤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압력을 가했을 때 보다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었을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내 뜻을 수용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선행단계로 내가 상대방의 현재의 마음 상태, 생각 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부부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단계는 나의 주장을 하기 앞서 우선 배우자의 입장 생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느낌 등에 대해 충분히 듣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 이때 설령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안맞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다. 그밖에 또 다른 불만은 없나 하고 물어본다. 그리고 나서 문제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한다.

또 상대가 말할 때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배우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전달한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한다.

셋째, 자신의 생각, 느낌과 일치되는 표현을 한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고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상대방의 잘못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점에만 극한시켜 표현한다.

다섯째, 과거사를 들추어 내지 말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시간에만 쏠점을 두어 이야기한다.

여섯째,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일곱째,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않는다.

여덟째,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여 합의점을 구한다.



너무나 어저구니 없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원해봅니다.

삼중백화점 사태로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기획논단

6.27 지자제선거, 여성단체는 어떻게 움직였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6월 27일,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업을 각 영역에 맞추어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본지에서는 7월 25일 성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있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자제 평가내용을 전면 기재하며, 이와 아울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발굴한 여성후보 당선자의 명단을 함께 실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94년에 이어 올해 역시 중점사업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사업을 진행해왔었다.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사업의 목표 및 활동

1)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사업의 목표

지방자치 제2기를 맞이하면서 여연은 여성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에도 불구하고, 여성주권의 대표성은 0.9%에 머물고 있는 낙후한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관련 요구를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하여 제안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 여성의 낙후한 정치참여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주권의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과제 발굴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여성운동의 지평을 확대한다

는 것을 중점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다.

2)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사업을 위한 활동내용

(1) 교육 선전활동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행사, 교육,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8 여성유권자한마당, 20%지방의회 여성참여 소책자 발간, 지방자치교육 등 다양한 교육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원단체에서는 지방자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회원교육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회지를 통한 홍보, 그외에 지역언론을 통한 일상적인 일상활동 등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2) 여성후보발굴 및 지원활동

여성운동이나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통한 조직경험으로 지도력을 갖춘 여성들을 발굴하여 선거시기에 필요한 선거실무교육, 여성정책 공약개발, 의정활동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교육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지역여성운동의 조직화와 여성의원과의 연대망 형성

지난 2-3년전부터 여성운동은 현실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정치역량 확대를 위하여 지역여성의 조직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여성들의 교육을 통해 지역내의 생활상의 요구, 교육, 환경, 쓰레기소각장, 여성 및 아동복지 등의 사안을 끊임없이 이슈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미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의원들과의 연대망을 형성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여성대중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적 과제를 여성운동의 현장과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동시에 여론화하여 입법제도화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이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하였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의 회원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거리서명을 전개하여 지방의회에 청원하였다.

(4) 20% 할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여론화 활동

한국 여성의 낙후한 정치참여 현실을 극복하고, 불평등한 여성의 제반 지위를 개선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 교육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비율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보호조치로서의 할당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 범여성연대기구인 '할당제 도입을 위한 이성연대'를 구성하여 국가적 정책으로서 20%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 정당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수원 등에서도 여연 회원단체가 적극적으로 범여성연대를 구성하여 할당제도입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5)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후원회 조직활동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 500인과 1,000인 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에 관한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후원문화행사 등을 가졌다.

(6) 올바른 지방자치법 개정활동

현행 통합선거법은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는 제87조 뿐만 아니라 허용된 선거운동조차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유권자와의 접촉공간을 크게 제한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중앙정치에 의해서 좌우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무권한, 주민자치권 등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연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올바른 지방자치법 개정활동을 전개하였다.

(7) 선거 자원봉사단 활동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깨끗한 선거풍토는 기본적 전제이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에서는 좋은 여성후보와 여성정책을 지지하는 민주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원봉사활동을 회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8)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지방정치 무대에 진출하여야 하는 훌륭한 여성후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연은 회원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추고 대중적 신망을 쌓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광역 및 기초의회에 입후보하는 활동까지를 하였다. 결과 17명(광역의회 5명, 기초의회 12명)의 후보가 발굴되어 집단적인 교육,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14명(광역의회 4명, 기초의회 10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9) 지방자치시대의 10대 여성정책과제 선정 및 공약요구 활동

지방자치시대의 10대 여성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여론화함으로써 각 정당에서 여연의 10대 여성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적극 수용하는 성과를 낳았다. 충북, 대구, 수원, 부산, 인천, 전북, 대전 등의 회원단체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는 10대 여성정책과제를 지역과 부문의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정책을 단체장, 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단체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사업 평가

1) 여성의 의회진출의 측면에서

여연의 회원단체 출신 후보 17명 중 14명이 당선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후보 자신의 인물

소속 단체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서 탁아, 환경, 교육, 여성 권익문제 등 생활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능력있고 깨끗한 여성후보라는 점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여연의 조직적 결의와 조기결심

여연은 지난 2-3년 전부터 이미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단체의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회원단체에서 능력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후보로 나설 것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후보의 진출은 단지 일 개인의 정치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영역을 확산하는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후보 본인이나 이를 지원하는 회원간에 돈독한 조직적 결속력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철저한 선거실무교육과 준비

또한 여연은 발굴된 여성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실기에 필요한 선거전략기획서 작성 등 선거실무교육, 지방의회 여성정책공약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등 일찍부터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통하여 집단적인 동력을 형성하면서 초선의원이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 또한 주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4)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어느 선거전정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과 양질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5) 집권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현상

집권당인 민자당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선거의 전 영역에 걸쳐 두루 작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이은 대형사고와 구호에 그치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여성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6) 유권자들의 인식변화

유권자들의 여성의 정치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여연을 비롯한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여론화 작업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지방자치에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고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여성회의 평가에 의하면 94년 5월에 실시한 대구시민의 정치의식 실태조사 결과 똑같은 능력을 갖춘 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에 52.5%①② 응답한 것에 비해 94년 12월에 실시한 지역 일간지 조사결과는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성후보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단체의 조직강화의 측면에서

(1) 선거시기 이전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사업에 대한 인식의 통일성이 높았기에 지자특위위원이 소속된 회원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이 지자특위위원 진영으로 자원활동을 하는 등 조직적인 결합력을 드러냈다.

(2) 극히 단기간의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여성운동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선거과정 이후에 탁아소에 대기하는 아동의 숫자가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과제를 발굴해 회원들이 활동 의지가 높아졌다는 한국여성민우회,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주부자원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지킴이단을 구성하려는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여성조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3)후보를 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여성참여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1년 반동안 꾸준히 전개하면서 회원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회원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4) 여연을 비롯한 여성계는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광역, 기초 모두 0.9%에 불과하던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광역의회에 5% 기초의회에 1.9%를 차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굴에서 후보전술까지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하였다는 의미에서 향후 여성정치진출의 초석이 될 것이다.

표 1 6.27 지방선거 선출정수 및 당선자분포 / 한국여성단체연합

구 분		선 출 정 수		후 보 자 수		당 선 자 수	
		91년 선거시		여성후보자 수	91년 선거시	여성당선자 수	91년 선거시
자치 단체장	광역	15		56	2	15	
	기초	230		943	4	230	1
지방의 회	광역	972	866	2,449	177	970	55
	(선출직)	875		2,221	40		13
	(비례직)	97		178	77		42
	기초	4,541	4,304	11,970	206	4,541	72
계		5,758		15,418	329	5,756	128

3) 향후 과제

(1) 후보

- ①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활동
- ② 의원들 상호간, 의원과 여성단체와의 연대망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 및 유대형성
- ③ 생활과제를 통한 지역여성의 조직화

(2) 여성단체

- ① 연대망 형성 - 중앙의 생활과제를 지역사업으로 연결
- ② 과제발굴 - 지역주민의 요구수렴, 활동이슈 개발
- ③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감사, 의회방청활동 등
- ④ 진출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⑤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
- ⑥ 지역여성지도력 양성

<별첨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당선자 명단

이름	선거구 / 당적 / 기호	공약
김영숙	군포시의회 재궁동 무소속 / 1	1. 인간중심의 생활공간 2. 도시기반 시설의 안정성 3. 노인복지관의 설립과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4. 교육시설의 확충 및 주변 환경제도
	함께 가는 이웃 함께 누리는 교육 함께 지키는 환경	
김은경	노원구의회 중계제2동 무(민주) / 2	1. 상계소각장의 대기오염 안전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2. 상계소각장 운영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 환경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4. 노원구민의 입과 발이 되겠습니다. 5. 노원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구의회의 속살됨을 일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노원을 지키는 환경파수꾼 밝은 생활, 깨끗한 터전 김은경이 이루겠습니다.	
김혜경	관악구의회 신림제7동 무 / 1	1. 난곡마을에 생활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난곡마을을 살리는 지역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누구라도 마을 놓고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합니다. 섬세하고 성실한 손길로 김혜경이 난곡을 가꾸어갑니다.	
문수정	구로구의회 구로제1동 무(민주) / 1	1. 출근시간이 여유로워집니다. 2. 등교길, 아이들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3. 푸르른 자연이 손짓합니다. 4.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바빠집니다.
	구일의 녹색후보, 미래를 가꿉니다. 살은 윤택하게/ 사람은 편리하게 / 마을은 푸르게	
오정례	전주시의회 송천동 무(민주) / 4	무공약의 공약
	지방시대 생활자치 여성을 시의회로	
원미정	인천광역시의회 동구 제2 민주 / 2	모든 주민의 재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밤길 세금도둑, 부정부패 없는 인천시정 깨끗한 시민의 일꾼 원 미정이 감시하겠습니다.
	정직한 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유송화	무(민주)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당선자 명단

이름	선거구 / 당적 / 기호	공약
유승희	광명시의회 철산3동 무(민주) / 2	1. 자녀교육문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출퇴근길 교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 지역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깨끗하다 확실하다 광명시 살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금라	서울시의회 강동 제1 민주 / 2	환경 / 교육 / 문화 / 기타 늘푸른 강동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서울! 늘푸른 강동!	
이영순	서울시의회 구로 제2 민주 / 1	1. 지역개발 2. 교육환경 개선 3. 복지향상 4. 환경보호 5. 행정감시
	사람 사는 정을 심겠습니다. 이사가지 마십시오.	
이재천	전주시의회 삼천1동 무 / 1	찌푸린 아이들의 얼굴에 생명을 여성참여로 반쪽의회에 생명력을 발 묶인 주민여론에 생명력을
	울곧은 시민정치 늘푸른 전주건설. 부천시의회	
최순영	무 / 2	
최찬애	도봉구의회 방학 제3동 무 (민주) / 2	도봉의 예산집행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이 제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수 렴 기회를 갖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 의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학3동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도봉의 찬찬한 일꾼 의정감시활동 3년	
홍미영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제2 민주 / 2	1. 교육환경 개선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2. 교통문제 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겠습니다. 3.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 주민복지 향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5. 친근한 행정, 비리없는 정치 - 인천광역시 개혁을 위해 알장 서겠습니다.
	우리동네 억척이 살림꾼	

■ 기획논단

지방자치선거 이후 민보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최현숙 / 본 회 회장

본 글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기관지 준비호에 투고한 것을 내용의 삭제 없이 본지에 전면 기재하는 바입니다.

본 글이 각 지역 민간보육시설연합회 뿐 아니라 전체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년간 각 지방별로 민보련이 결성되고 올해 2월에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이하 '전국민보련'이라 함)이 탄생되었다. 그간 민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지만 특히 민간보육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무대에서 그 가능성과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큰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만 몇가지 정리를 한 것으로 각 지방 민보련의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 지방자치선거 이후 민보련에 열려진 공간의 의미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자치선거에 나타났던 후보자의 공약들을 보면 보육사업에 대한 공약이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 개개인이 보육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육사업이 하나의 유행성 공약으로 채택되어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선거기간 중 한겨레신문이 서울시장 후보 '빅3'가 제시한 여성정책 중에서 보육관련 공약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원식	조순	박찬중
• 동사무소등 각 공공시설에 보육시설 확대 설치 • 보육시설 설치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보육사업 지원	•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가구당 소득 1백만원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 시립, 구립 어린이집 1천개 설치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행정 지원 •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 보육시설 설치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 기업 보육시설 설치시 시유지 임대 등 지원 • 민간사회단체의 보육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시유지 임대 등 지원 • 주민자치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시 우선적인 재정지원, 부지 저가임대

각 당선자들의 공약 채택 과정의 진지함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공표된 공약의 외관을 보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보육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또한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보육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이 다소 지방보육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라든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 준비도가 없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올 수 없을 뿐 더러 중앙정부의 보육관련 3개년 계획이 끝나버린 차기 선거시에는 올해와 같이 보육관련 공약 혹은 후보자들의 의지가 가시화 될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약을 내건 민선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 향후 지방 보육사업의 기본 골격이 될 지역보육사업의 청사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틀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민보련이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 앞으로 민간보육 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은 민보련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 본다.

선거시기에 지역 민보련들은 각각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작게는 「후보자에게 드리는 글」을 제작하여 각 후보들에게 보육의 상황과 민보련의 의지를 알렸으며 나아가 후보자 면담, 후보자 초청 토론회,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작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거시기에 중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보련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내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이후 민간보육사업을 해나가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2. 이후 활동에 대한 제언

지방보육시대를 맞이하여 보육을 둘러싼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며 또한 지방보육

의 초기여서 다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온 몸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1)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보육사업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먼저 각 지방에서 그동안 행해 지던 보육시책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보육사업 지침이나 행정서류, 의회에서 이뤄진 질의내용, 보육위원회 회의록과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보육시책이 결정되는 구조와 체계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에는 당선자들의 공약을 모아서 전체 목록을 작성해내는 것이 좋겠다. 특히 단체장과 보육담당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공약을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도움을 받을 의원을 찾거나 혹은 이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며 이를 돕기 위해 지역에서 도움이 될 연구자나 단체 등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민간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민간보육의 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활동은 공개적 방식과 개별적 방식이 골고루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각각의 단점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활동이 축적된 지방은 조례제정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선 토론회, 간담회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2) 조례제정사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전자라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조례제정사업이라 하겠다. 조례제정작업은 지방보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바램을 모아서 이를 조례안으로 표현하고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조례제정작업을 같이 할 의원을 만나는 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 만들기,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일, 그리고 다른 지방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등이 되겠으며 아마도 민보련이 할 수 이있는 사업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사업은 대다수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도를 차단하고 일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소지가 많아서 단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지 않고 아직 회원들의 멤버십이 강고하지 않은 곳에서는 무리하여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3) 지방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민간보육사업에서 모든 활동의 원인이자 결과이고, 지속성을 요구받는 사업이 바로

지방보육 예산확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지방보육 예산편성을 토대로 자체 요구내용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발송할 예산확보를 위한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보육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와 담당 부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안 마련을 위해서는 그간 복지부에 제시한 요구안을 참고하고 지방예산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단체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같이 힘을 보탬 수 있는 연구자나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을 파악하고 일정한 고나계를 유지하며 특히 보육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소신있는 지방의원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4) 이러한 활동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민보련 차원에서 지역사업의 정보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보육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성격과 내용이 달라서 전국차원에서 일방적인 방침을 내오기 어렵다. 따라서 한 지방의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 이 모든 활동의 성과는 민보련의 내부 결속력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회원간의 결속력은 가깝게는 어떤 사업을 잘 추진하고 교섭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을 펼치는데 항상 회원들의 참여와 결속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활동이 몇몇 책임있는 임원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듯 진행과정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회원들은 눈 앞에 보이는 성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 소극적이 되거나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의 원칙은 전체 회원들의 토론과 합의 속에서 진행되는 세심한 배려(당연한 절차)를 보장하고 나아가 의견이 모아지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성숙함을 서로간에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는 정책과 예산확보사업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민보련이 만들어 내고 풀어야 할 사업들, 시간과 회비와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해내야 하는 이 일이 단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지치면 다시 일할 의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함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절반의 보육아동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며, 그 점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곁에서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회원들을 볼 때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 기획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Sandra Scarr지음 / 현은자 역)

김윤주 / 정책연구부

‘보육1)’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엄마 - 아동’의 관계, 가정에서의 엄마의 사랑 등을 강조하며 일하는 엄마들을 심리적 궁지로 몰고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Scarr의 『엄마의 양육, 타인의 양육』은 바로 이러한 문제 - 자기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한다는 일하는 엄마들의 죄책감 - 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정당성과 어머니의 자신감을 높여 탁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연구들을 분석, 인용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건강한 아동과 부모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일반적인 견해들 - 엄마가 일을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하는 - 과는 달리 어머니의 직업이 아기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잘못되고, 편협된 관념들에서 일하는 엄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구성은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장에서는 일하는 엄마들이 겪는 딜레마를 나타내고 있다.

유아를 가진 오늘날 대부분의 엄마들은 상충하는 충고와 갈등 속에 있다. 비취업모들은 대개 직장을 가진 어머니를 부러워 하며 집에 남겠다고 한 자신의 결정을 보육의 적합성을 의심함으로써 정당화 한다. 그러나 일하는 엄마들은 전통적인 비난의 목표이며 심지어 평범하며 일상적인 아이들의 문제에조차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문명이 여성과 아동에게 바라는 관계는 아이러니한 것으로, 사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가는 엄마들에게 죄책감을 강요하고 있다.

저자는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에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에 대해 Cardwell과 O'Connell의 연구에서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은 애착과 안정감을 보여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우기 저자가 지적하는 가장 나쁜 것은 영아기가 이후의 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장되는 죄책감이다. 이는 부모들이 바라는 결실을 보장 받기 위해 고유한 종류의 자극이 영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부모의 불안을 가중시켜 자녀를 실제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아기들은 자신들에게 세계를 탐구할 기회를 주는 사랑하는 성인 - 반드시 부모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자극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저자는 초기 교육에 대해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를 위해 충분히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장사꾼의 창조물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보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Rutter(1982)는 “적절한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가 일하러 밖에 나가지 않은 때에만 가능하며 탁아소는 아동의 건강에 심각하면서도 영구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형태와 보육이 아동에게 안전한 것임을 확신하게 하였다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누가”와 “어디”는 “무엇”보다 덜 중요하다. 각 아동은 자신의 개인성과 생득적 발달양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지, 엄마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또 다른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양육 제공을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하는 엄마’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동에 대해서도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 뿐 실제 아동은 물론 아동을 다루는 성인조차도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4,5장에서는 어머니에 의한 자녀양육에 대한 각 시대의 관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머니이며 자신의 권리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최근에 겪는 갈등과 죄책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불안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현대의 어머니들이 겪는 딜레마는 최근의 가족 생활의 실태와 19C말과 20C초에나 걸맞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사고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으로 그 갈등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직업을 갖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관한 19C 생각과 여성에 대한 현대의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동과 어머니관은 그 시대의 문화적 기풍에 뿌리 박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아동은 최상의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 순수한 왓슨식의 아동²⁾보다 덜 집중적인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며 순수한 게젤식 아동³⁾보다 더 많은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즉

2) 왓슨은, 아동은 전적으로 양육에 의해 형태지어지며 세세한 훈련의 수동적 수령자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왓슨이 말하는 아동양육은 엄격한 습관 훈련으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3) 게젤은 개인차를 인식하고 존중하였으며 최적의 발달을 향한 아동의 선천적 경향을 믿었다. 그러므로 아동은 유전적 프로그램이 지시하는 바대로 성숙하며 환경은 보조 역할을 할 뿐이므로 부모는 아동의 발달을 관찰하기를 즐겨야 한다고 하였다.

1) 편집자주 : ‘탁아’라는 말은 공식용어가 아니기에 ‘보육’이라는 용어로 바로잡습니다.

지속적인 아동복지에의 관심과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합법적 관심으로 인하여 반(semi)계절식 아동이 현대에서 자녀의 좋은 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동과 부모기의 개념의 변천은 아동의 천성과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견해들이 변화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으며,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시대와 장소에 맞는 견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사회는 '일하는 엄마'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대와 애착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쉽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러한 개념을 통해 어머니들 자신은 자신의 아기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도록 되어 있고 유아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특별한 보호자라고 규정 짓는다.

이에 대해 저자는 Sahafer와 Emerson의 연구와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영아가 거의 동시에 친숙한 사람들과 복수의 애착관계를 형성함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Sahafer에 의하면 "최근까지 어머니와 영아의 유대관계에 대한 관습적 견해는 무엇보다도 그 관계의 배타성을 강조하여 보호가 단 한명의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고유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들은 좀 더 다른 사실을 드러내었다. 영아는 볼비⁴⁾가 제안한 바와 같이 단 한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다. 일단 그가 고유한 애착을 형성할 단계에 이르면 동시에 다수와의 애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아기들은 한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도 잘 성장하며, 그들은 친숙하여 믿을 수 있는 보호자, 놀이 친구, 친절한 방문자하고 같이 있을 때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어머니와 배타적인 애착관계가 아닌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만일 우리가 배타적인 애착이 다수의 애착보다 더 좋은 모자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버릴 수만 있다면 탁아에 대해 우호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독점적인 어머니의 애착을 가졌던, 즉 과거의 문화가 가졌던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가족의 형태와 아동의 관계에 대해 아동이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안정된 가족형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가족의 형태도 항상 아동의 생활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친 부모가 있는 핵가족에의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족형태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가버리 여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도, 가족도, 구성원간의 관계도 계속 변화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4) 볼비는 아동이 애착을 통해 세계를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기초가 제공되며, 걱정과 긴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한 정서적 천국을 제공하므로 애착의 대상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아기는 안심하고 주위를 탐구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가라앉힌다고 하여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주장하였다.

그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쏟는 성인이지 특별한 가족형태도,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심리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6장에서는 좋은 양육의 특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양육의 조건은 프로빈스가 제시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신체적 보호, 2) 지지적인 물리적 환경, 3) 개인적 요구에의 반응, 4) 아동이 환경에 작용할 기회의 제공, 5) 풍부하고 애정어린 분위기, 6) 같이 이야기할 사회적 동반자, 7) 일관성과 반복성, 다양함과 대조의 경험, 8)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절한 장난감과 다른 가지고 놀 것들, 9) 조용한 시간, 10) 한계와 규범에 따르기 이다.

좋은 아동양육은 부모와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아동발달의 지식, 즉 아동의 고유한 인성과 능력의 이해와 발달적으로 적절하고 각 아동에게 맞도록 고안된 양육을 제공하려는 자발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7,8,9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양육과 보육의 유형, 좋은 보육시설을 고르는 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육형태 - 방문모 보육, 가정보육, 시설보육 - 등에 대해 언급하고 좋은 질의 보육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 양육의 형태로 키부츠의 예를 들고 있는데, 계획적인 공동사회에서 아동양육은 아동양육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회가 아동을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공동양육에 대한 연구는 좋은 아동양육이 취업모와 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아닌 애정을 주는 다른 성인에 의한 낮시간의 보호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위협하지 않는다.

저자는 아동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 의해 인정된 일과 가족생활의 양상이 들어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가진 지식들과 그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다른 차원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편협되어 있던 아동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일하는 엄마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육을 선택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좋은 그림책 소개

🍎 싹 싹 싹

글, 그림 하야시 아키히코 / 한림출판사 / 2,500원

아기가 밥상 앞에 앉기 시작하면, 숟가락을 달라고 조릅니다. 여기저기 음식을 흘리는 서툰 숟가락질이지만 꼭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숟가락질을 막 시작한 아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입니다. 여기저기 흘리지만 닦으면서 끝까지 다 먹는 모습은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 자신입니다.

인형들과 같이 음식 먹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나 음식이 묻은 인형들의 여기저기를 닦아주는 아이의 모습, 자신이 흘린 음식은 환히 웃는 엄마가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숟가락을 찾을 지 모릅니다.

(만 1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나무늘보야 예엄겨

글 앤 텀블 / 그림 에마 치체스터 글락 / 이명희 옮김
/ 도서출판 마루벌 / 6,500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홍수를 피해 '노아의 방주'에 올라 탑니다. 이 와중에도 나무늘보는 태평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잠만 잡니다. 먼저 배에 탄 동물들이 안타깝게 놀보를 부르지만 나무늘보는 '내일 탈까, 내일'이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동물들은 그래도 게으른 놀보를 아슬아슬하게 구해냅니다.

빠르게 불어오는 홍수와 태평스런 놀보의 모습, 알미우리만치 무심한 고양이와 놀보를 구하려 애쓰는 다른 동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대비되어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이끌어 가는 그림책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놀보가 배 위에서도 여전히 잠을 자는 마지막 모습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5, 6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연재

예화동 '나눔의 집'

변미양 / 본 회 재정간사, 편집부

어디쯤일까, 할머니들이 사시는 집은?

말로만 들었던 종로구 예화동 5-31번지 '나눔의 집',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시는 곳을 찾아 가는 중이다. 마을은 옛 성균관 유림들이 살았던 곳이라서 그런지 석양빛 아래 고즈넉한 정취를 풍기고 있다. 오늘의 방문을 위해 황미혜 문화홍보부장과는 일찍부터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실무자인 해진 스님을 함께 뵙려고 하니 그리 넉넉한 시간을 잡기가 어려웠다. 약속 시간 저녁 7시, 시계는 분침이 좀 지나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애 쓰셨습니다. 전화로 설명하기는 길이 좀 복잡해서 제가 나왔어요."

큰 길까지 우리를 마중 나오신 해진 스님. 약간 윤이 나는 댕 머리에 동그라니 구김 없는 얼굴이시다. 불가에서는 입문한 나이로 어른을 모신다니 세상의 나이로 연륜을 짐작하기란 부질없는 일일 터. 스님은 할머니들과 함께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시고 계신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사회학과에 유학 예정이라신다.

골목을 들어서서도 비탈길을 꽤 올라야 했다. 내 몸이 힘들어서일까 할머니들에게도 쉽지는 않은 길인 듯 싶다.

"바로 이 앞 집입니다."

지은 지 오래 돼 보이는 한옥 담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그 집 나이만큼이나 껍질이 둘러쳐 있다. 길 모양새로는 요즘 흔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보단 할머니들에게 어울려 보였다. 작지만 마당도 있고 나무도 몇 그루 있어 할머니들의 정겨운 손놀림이 적적하지 않을 듯도 싶다.

집안에 들어서니 할머니들은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낮은 방문객이 인사부터 올린다.

어여 들어와요, 아직 낮은 설지만 워낙 손님맞이에 익숙하시는지 서둘러 맞아 주신다. 우리는 저녁들 다 먹고 이제 쉬고 있던 참이었지.

혹여나 손님 접대 하시느라 번거로우시진 않을까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다.

마루 한쪽 자리를 차지해 앉기는 했는데, 무슨 말씀부터 꺼내나... 막막한 심경이다.

맨승한 얼굴로 그냥 대하고 있자니 계면적어 괜히 집안 구석구석으로 눈이 간다. 그래도 예전에는 행세했나 했던 사람의 집인 듯 집 내부도 튼튼해 보였다. 벽에는 그림이 여러 폭 걸려 있고 별다른 가구나 살림이 눈에 띄진 않는다.

할머니, 지내시기에는 어떠세요?

너무도 편한 질문. 아, 여기가 그냥 우리 할머니 덕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반갑게 뵙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안부 인사나 여쭙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도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덕이기라도 하다면, 아마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용어리가 아닐진대 나 어린 손녀들은 뭔가 죄스럽고 불편한 마음에 기가 죽는다.

저녁은 먹었나? 여기 떡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좀 들지.

예, 잘 먹을게요. 할머니, 집은 옛날 집이어도 튼튼해 보여요.

지금 지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보일러가 다 고장났거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얼마나 추웠을까.



나눔의 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해진스님

'나눔의 집'이 처음 생긴 것은 92년 8월이었다. 91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정신대 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교인권위원회에서도 연대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불교인권위원회 총무로 있던 해진 스님이 정대협 실행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할머니들의 어려운 여건에 보탬이 되고자 92년 3월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했기에 다양한 홍보와 수익 사업을 펼쳐 나갔는데, 작가들의 그림이나 도자기를 기증 받아 전시회를 열고, 이선희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었으며, 불교방송국을 통해 모금 운동도 벌였다. 그렇게 6개월 간 모금한 결과 5천만 원이란 거금이 모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종단의 한 스님께서 익명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증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모아진 총 기금이 2억 원. 그렇게 해서 당시 마포구 서교동에 전세를 얻고 일곱 분의 할머니들이 함께 사시게 된 것이다. 정대협에 등록된 할머니들만 해도 162명이나 된다.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 받고 계시는 처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한많은 고통을 듣고 보면서 그분들이 편안히 거처하며 사실 집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나눔의 집에서 사실 수 있는 할머니들의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처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 대여섯 분이었던단다. 그러나 그 중 선착순으로 일곱 분만 모시게 된 거였다. 나눔의 집

이 마련되었다 해도 이 곳은 또 다른 수용소여서는 안 되었기에 적은 분들이나마 개인마다 당신들의 방을 쓰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들이 함께 사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저마다 상처투성이가 된 가슴과 몸뚱아리 부들켜 안고 사셔야 하기에 그날그날의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별도의 정신적인 치유와 보상이 주어지지 하는데, 정작 당신들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사시다 보니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아픔'들이 더 진하게 후벼파지는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한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지난한 이 싸움은 언제나 끝날 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분만 자꾸 생기고 기력들은 더 쇠진해 가는 것 같다.



나눔의 집에는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 인술을 펼치는 한의사도 오신다. 마침 얼마전 할머니들은 일본에서 순회 전시회를 가졌다고 한다. 마루 한 쪽 벽에는 할머니들의 작품이 포개져 있었고 들어올 때부터 눈에 띄던 역자들은 다른 기성 작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들의 작품이었다. 그 중 중앙 기둥에 당당히 걸려 있는 강덕경 할머니의 작품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빼앗긴 순정'이라는 이 작품은 화면 한가운데 벚꽃나무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그 나무 옆으로 한 소녀의 나뭇잎이 뿔뿔히 뿜어져 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예술로 형상화해 낸 할머니, '일본군에게 끌려가 언덕에서 처음으로 당했던 순간'이라고 덩덤히 너털이는 말씀에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올 8월에는 서울 인사동에서도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대구에서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할머니들은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수요일집회에 나가시고, 다른 날에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뵈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 지난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시고, 혼자 계실 때에는 잡념과 한숨을 없애려고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신다. 그리고 언제 따뜻한 진지상이라도 한번 반듯하게 받아보신 적이 있을가만은, 아직은 힘이 있으니 움직여야 한다면 삼시 세끼의

나눔의 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중에는 할머니들의 건강을 염려해 매주 방문하는 젊은 한의사도 있다. 이 사람은 할머니들을 진맥하고 약까지 지어와 드린다고 한다. 아프신 데가 많은 할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이 한의사의 방문이 반가우신 것 같았다. 마침 우리가 있는 시간에 찾아온 이 한의사를 반기시는 모습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한글과 미술을 가르쳐 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한겨레 신문을 통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찾아왔다고 한다. 특히 홍익대 미대 출신의 미술강사인 이경신 씨라는 분의 지도로 할머니 몇 분은 깜짝 놀랄 정도의 작품 실력이 되었다. 그나마 이렇듯 성의껏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할머니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는가 보다.

식사를 만들어 드신다.

나눔의 집 운영은 불교인권위원회의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맡고 있다고 한다. 집세를 제외한 적립금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한달에 1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린다. 하지만 전세라 이곳 저곳으로 매번 이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어서 빨리 할머니들의 안식처가 마련되어야겠기에 이 집 책임을 맡고 계신 혜진 스님은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보일러가 고장난 이 집에서 겨울이 오기 전 이사를 가고 장래에는 경기도 광주 퇴계원 근방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간단히 말씀하셨다. 구상은 구상이고 실현되기 위한 대안들이 있어야겠기에 확실히 말씀을 못 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눈가에 가득한 당신들의 어두운 기억의 양금들이 어찌 그림으로 그려낸 강덕경 할머니 지위질까만은 그 웃음만은 인자하신 우리의 할머니들 박옥녀(72세) 할머니, 박두리(67세) 할머니, 이용녀(67세) 할머니, 강덕경(64세) 할머니, 손관임(67세) 할머니, 김순덕(70세) 할머니, 이영숙(64세) 할머니.

"술 마실 일도, 신명날 일도, 화날 일도 없고... 나 이제 다 깨달았어."

잊어버리려고 애썼기 때문에 더 아픔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어두운 대문 밖까지 배웅해 주시는 할머니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가슴이 메이는건 왜일까...

■ 기획연재

연극 이야기 -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이우연 / 성균관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지면의 일부를 줄거리로 메우는 것이 속 들여다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극을 본 사람보다는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소개를 한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며칠 후, 중국의 어느 군 위안소. 귀향을 내일로 앞둔 이 곳의 세 젊은 여인이 주인공들이다. 순이는 옷을 빨다가 자신의 지난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우는 데 광적으로 집착한다. 봉기는 오늘도 중국군을 상대로 돈 버는 일에 여념이 없다. 봉기의 고향 친구, 금주는 버려진 군용물자를 주워 모으며 군수공장 공원이었다는 자신들의 거짓 이력을 준비하고 그것을 봉기와 함께 되풀이한다.

“기차를 타고 배를 한참 동안 타다가 내렸더니 커다란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엔 기계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조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거기가 바로 나고야예요. 그곳에서 우린 2년을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공장이 망해서 돈 한푼 못 받고 도미야마로 갔어요. 거기에서도 일본군 군복을 만들었지요.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일본이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대사다.)

드디어 날이 밝고 트럭이 도착했다. 하지만, 순이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봉기는 그간 번 돈을 쥐어 주며 귀향을 설득하는 금주를 뿌리치고 도망쳐 버린다.

무대가 오른 후, 나의 제 일감은 ‘기대 밖’이었다. 제목만으로 일제 식민통치라는 이 연극의 배경을 예상치 못한 내가 또 다시 곤란한 역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 더욱이 “여가”로 찾아온 곳이라는 점에서 - 나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다. 정신대로 대표되는 바의 일제 식민통치의 측면과 민족주의적 정열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 - 어떤 민족주의자라면 입이 아니라 손으로 대꾸할 소리지만, 식민지기의 공업화가 해방 이후 남한의 급속한 공업화에 긍정적인 조건을 형성했다는 사실, 양자간의 대립, 또한 후자가 의미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나는 반쯤은 연극을 보고, 나머지 반쯤은 또 다시 “어려운 역사”를 상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럭이 도착한 후, 봉기를 설득하는 금주가 “기차를 타고 배를 한참 타다가 내렸더니...”를 반복하고 절규할 때, 내 “역사”가 끝났다. 나는 집사람 놀림이 두려워 얼굴



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다. 이 절반쯤의 연극 감상과 어설픈 역사의 혼돈이 막을 내릴 때까지 내게 계속되었다면, 나는 지금 쓸 말도 없었을 것이고 술집에서 집사람과 할 얘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물에 몸을 던진 순이만 있었다면, 또는 그 동안 종종 보아왔던, 그래서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순이와 봉기만 있었다면, 내 반타작은 계속 되었을 것이다. 내가 온전히 연극을 보고 그 것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금주 덕이었다. 금주가 사는 법은 순이나 봉기가 사는 법과 달랐다. 하지만 금주만 있었다면 그것도 여전히 반쪽이 있을 것이다. 순이도 있고 그래서 순이가 사는 법이 있고, 봉기도 있고 그래서 봉기가 사는 법이

있고, 금주도 있고 그래서 그가 사는 법도 있어서 이 연극은 “예술”다웠다. (듣기로는 연극에서는 각 인물의 독특한 성격이 중요하다고 한다. 연극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자살한 순이와 귀향을 포기한 봉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굳이 차이를 들라면 봉기는 귀향 전일까지 중국군에게 몸을 파는 장면을 관객에게 보여줬고 순이는 그것을 중요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는 점 뿐이다. 양자의 차별성이 컸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시대를 닮는다.”고 한다. 또 “살이 우리의 학교”라 한다. 사람이 시대를 닮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의 삶으로부터 진정 배울 수 있다면, 그 삶이 찬란한 것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야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도 각 개인에게는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상이한 결과, 즉 상이한 삶이 나타난다. 식민통치의 억압, 착취와 한 인간으로서의 식민지 민중 개인과의 관계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할 때,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의, 혹은 사회적 사실의 예술적 재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 차이를 간과할 때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선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 명의 “인간”이 등장한 이 연극은 정신대 문제의 “선전”에 머무르려 하지 않은 “예술”에 가까웠다.

집사람은 정신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나와는 다른 소감을 말했다. 나와 집사람이 생각하는 “선전”의 개념이나 “예술”이 아마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날 술집의 논쟁의 대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역시 그와 내가 서로 다른 인간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인간다운 “차이”이기 때문이다. 예술 역시 외적 대상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관객의 자유다. 때문에 나는 “평”이 아니라 소감을 적을 수 있다.

■ 아이들과 지내며

너무나도 천진한 아들 키우기

이의숙 / 중앙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95년 6월 2일 공영 씨

제목 : 위계상향

학교에서 만날 나이를 때렸었다. 그게 너무나 내 짝궁이다. 되게 어울린다.

와나면 선생님한테는 잘 하고 있는 시간에는 만날 때리지, 하루라도 안 때리면 날이 없었다. 그날은 성질이 하도 안 좋고 세 가지로 여자아이들도 만났다. 그래서 너무 어울린다.

오늘도 또 못 안 좋다고 놀리고, '저'도 씹고 놀렸다.

나는 그, 나를 때리는 짝궁이 싫다. 왜냐하면 어떤 적은 적이다. 그래도 내 짝궁처럼 세게 때려 본 적은 없다.

진실하지 않은 어이 같다.

매일 참았어도 외딴은 본해서 일기장에 썼다.

선생님한테서 나랑 똑같은 그런 위(?), 똑같은 아이랑 짝을 지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이 잘 오지 않은 때도 있다.

참 선생님께는 잘 하다가 나는 만날 바로 때리고...

내가 잘 해도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다.

엄마께서 얘기하시면 또 내가 비겁한 아이가 되니 선생은 안 좋아.

95년 6월 4일 영영 씨

제목 : 영어서서 타기

여태 그런 미끼를 먹었는데 안아서 탔다. 그리고 그날도 안아서 탔다.

근데 외딴은 달랐다.

미끼를 먹었는데 안아서 탔다.

똑똑똑할때서 영어서서 타면 잘 넘어질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

미끼를 먹었는데 보름 미끼를 먹었다 더 이상하게 생각해 봤었다.

그리고 그날도 영어서서 탔다.

그날 올라가서 막 하니까 됐다.

33세에 늦게 아이를 낳았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의 아이는 행복한 아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처녀때 아이들을 좀 다루는 재능이 있기에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울거라고 얘기했었고, '맞아,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편이거든.'하며 은근히 자기도취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임신 중에도 아주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교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입덧으로 밥을 못 먹는 나에게 철에 나지 않는 귀한 딸기를 사오셨다. 어른하고 같이 먹는데 어떻게 임신했다 해서 예쁘고 맛있게 생긴 것만 먹을 수 없었다. 나름대로 이런 철학을 갖고 어른은 좋은 것 드리고 나는 빼돌고 못생긴 것, 맛없어 보이는 것을 먼저 골라 먹으면서 '이렇게 생긴 것 먹었다고 해서 빼돌어진 딸기를 담은 아이는 낳지 않겠지. 어른을 존대하는 마음을 담을꺼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아기를 출산했고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다.

양보심을 키우려고 했고, 요즘 많은 아이들이 물질만능과 풍요 속에서 자기 물건 아낄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물도, 전기불도 켜든지 아껴써라 하며 본을 보여왔다. 그래서인지 헤어진 옷도 못 버리게 하는 것이다.

하루는 피아노학원 선생님을 만났는데 웃으면서 "아론이가 너무 재미있어요."하는 것이다. 엄지 발가락이 쑥 나온 양말을 신고 와서, "어! 아론이 발가락이 나왔네." 했더니, "네, 숨쉬는 발가락예요."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더라는 것이다. 그래, 역시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 그러나 아홉살, 학교에 들어가 미술공작시간이 되어 찰흙을 보냈다. 작품을 가져왔는데 사과를 사탕알만하게 다 작게 만들고 찰흙을 9는 그대로 가져왔다. 깜짝 놀라 "애, 찰흙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니?" 속이 상해 물었다.

그것뿐인가. 색고무찰흙을 사준 적이 있었다. 아까워서 못 쓰고 나중에 쓴다고 하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교육방법이 그랬으니 지금에 와서 어찌랴, 소심한 소견으로 한쪽면에 치우쳐 키운 내 자신을 탓하며 엄마의 한계성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내 아이 무한한 성장을 방해한 범인이 되었다.

또 이런 일도 비밀비재하게 있었다. 자기보다 2~3살 어린 아이가 위험만 해도 "엄마!" 하고 울며 도망오는 것이다.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1학년때부터 하는 얘기가 자기 반에서 싸움을 제일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어능력이 없어 참아 버리는 것 같았다. 한번은 그랬다. 내가 정 잘못이 없을 땐 당당히 따끔하게 혼내줘라 했더니 그러면 아플까봐 세게 때리지도 못하겠고, 이 다음에 군대도 가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참지 뭐 하는 것이다. 여자 짝궁한테 매일 당하면서도 참아 버리는 것이다.

어렸을 때 아파트 안에 가두어 혼자 키워서인지 신체발달이 좀 늦은 것 같으며 어떻게 보면 겁장이이기도 하다. 3학년이 된 지금에서 그네 혼자 타고 미끄럼 서서 타고 와서 성취감을 맛보고 대견스럽게 일기장에 쓴 것도 발견하게 된다.

조작능력도 부족하여 만들기 로봇을 사서 혼자 해결 못하고 해줘, 해줘 하더니 요즘 예서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중한다. 조립 후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고 엄마로서 혀를

- 1) 이름 정아론. 국민학교 3학년 남자아이로, 글쓴이의 아들이다.
본 글에서는 아론이의 일기를 발췌, 맞춤법만 수정하였다.

차며 쫓쫓할 때도 있다. 이 부족한 엄마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탓이 많겠지. 요즘에 와서는 아이의 배짱을 키워주기 위해 매일 용돈 주던 것을 일주일 단위로 주기도 해 본다. 그동안 50원, 100원 짜리 자질구레한 장난감을 사들이던 아론이가 제법 돈에 눈을 떠 용돈을 모았다 좀 비싼 것도 사곤 한다.

내 아이가 좀 더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용기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떨 때 보면 노는 아이들마다 자기보다 3~4살 어린 아이들과 벌레 잡아 관찰하며 노는 것을 많이 본다. 물론 뭔가 가르쳐 주며 자신도 배우겠지만 아론이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때도 있다.

아론이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었다. 제판에 비집한 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 괴롭히는 여자 친구를 엄마가 만날까 했더니 기겁하며, 그러면 나는 비집한 아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큰 아이로부터 보호하는 의협심을 보일 때도 있긴 하다. 불쌍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약하고 어린 마음을 보며 어디서 어디까지 아들을 생각하고 지도해야 할지...

요즘 어른 뺨 치는 영악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진성을 볼 때마다 엄마의 지도 부족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학습장 뒷장에 가족 상황 기록간에 이름, 생년월일, 비고가 있는데 비고란에 다 "배개"라고 써놓은 것이다. "애, 왜 여기다 배개라고 썼니?" 하니, "비고 잘 것은 배개밖에 없잖아." 하는 것이다. 이런 천진함에 웃음이 나오며 내 자식이라 귀엽기도 하지만 한심스럽게 느껴지며 염려가 앞선다. 점점 커가면서 엇그제는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하는건지 하루는 "엄마, 우리 부자야, 가난해?" "우린 부자도, 가난도 아냐." 무심코 넘겨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땀 밥을 반 정도 먹고 나서 야! 이젠 햄과 김 다 먹었으니 깍둑이랑 감자하고 먹어야지.' 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거짓말을 안 하는 정직한 아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를 너무 당황하게 했다. 놀란 표정으로 "아론아! 왜 그랬어?" 했더니 "엄마! 옆 짝꿍이 매일 우리 가난하다고 놀려." 학용품, 옷 뭐든지 보는 대로 싸구려라고 놀린다는 것이다. 나는 "아론아! 깍둑이와 감자, 영양이 좋은 음식이야. 엄마가 햄을 싸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싸주는 거야. 땃땃하게 먹어야 돼. 물론 엄마 햄 싸줄 수 있는 돈 많이 있어. 이것 봐." 주머니 돈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우리만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거든. 그리고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쓰레기 치는 아저씨 하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더러운 냄새 맡으면서 어려운 일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받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최선을 다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남을 속여서 착취하여 부자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냐.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난한거야. 그리고 네 짝꿍이 아무리 놀려도 내가 반응

을 안 보이면 심심해서 놀리다 재미없어 안 놀릴거야."

이말 저말 여러말로 설득했지만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엄마는 어떻게 키울까? 하나 갖고도 쥘쥘 매는 엄마. 요즘 유아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더욱 한계성을 느낀다. 천진스런 우리 아론이를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대응해 나갈 아이로 키워야 될지.

하루는 먼저 살던 동네에 아는 집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그래도 나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었다.

"아론이 잘 커요? 공부 잘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런것 같아요." 했더니 피아노학원 선생님 말씀에 아론이가 신사라며 잘 눈여겨 보았다가 나중에 사위 삼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싸게 주셨다.

엄마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보았을 주위 사람들의 말에 우리 아론이가 심각하게 염려할 만큼은 아닌가 보다, 약간의 위안이 되었다.



조카와 함께

신정숙 / 우리말연구소

지난 5월 마지막 일요일 나는 정 선생님(편집자주 : 대학시절 은사님)을 뵈러 전주에 갔다. 가는 길에 조카도 같이 데려 갔다. 조카는 올해 여섯 살 사내아이로 이름이 신한걸이다. 여섯 살이지만 생일이 2월이라 올되었다(편집자주 : 나이보다 성숙하다 ↔ 늦되다).

조카를 데리고 먼저 구의 전철역으로 갔다. 전철을 타자마자 조카가 물었다.

"고모, 전철 몇 번 타야 돼?"

"응... 두 번 타야 돼."

"그럼 다음에 내리는 거야?"

"아니, 이 전철을 타고 좀 가다가 다른 전철로 바뀌 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전철은 몇 번 타는 거야?"

"잘 모르겠어. 표를 보고 세어 봐야 알 수 있지. 어디 보자."

나는 구의역에서 2호선을 타고 동대문운동장까지 가서 4호선으로 바뀌 탄 다음, 서울역에 가서 6월 10일행 대전 표를 2장 예매하고, 다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전주 가는 버스를 탈 생각이었다.

조카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 아이가 너무 지루해 할 것 같아서 나는 설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철역 수를 사실보다 적게 말했다. 그런데 조카는 전철이 설 때마다 역 수를 세었다. 그래서 나는 조카가 역 수를 세지 못하도록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두리번거렸다. 마침 의자 뒤 유리창물에 교회 선전책지가 하나 눈에 띄었다.

"한걸아, 여기 있는 글자 한번 읽어 봐."

"고모가 읽어 줘."

"한걸이가 읽어."

"에이, 글자가 너무 많아서 못 읽겠다."

"그래? 그럼 고모가 이만큼 읽어 줄테니까 여기부터는 니가 읽어."

"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랑 조카는 번갈아 그 쪽지를 읽었다. 그 사이 전철역을 여러 개 지나서 한 번만 가면 동대문운동장이 된다. 쪽지도 거의 다 읽어 가는데 갑자기 조카가

"그런데 고모오,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

사뭇 궁금하다는 말투다. 하늘에 있다고 하면 옳은 답이 아닌 것도 같아 망설이고 있

는데 조카는 쪽지를 마저 읽더니

"아! 알았다. 고모, 여기 봐. 예수님은 그리스도(道)에 살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道)에 사나 봐.'"

다시 쪽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자기말이 옳다고 증명해 보인다.

'그리스도(道)'라? 나는 조카의 설명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 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은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싶어 놀랐고, 말에 대한 아이들의 이토록 깨끗한 느낌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가 벌써 동대문운동장역에 닿았다.

곧장 조카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끊었다. 이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면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갈까 망설였다. 전철을 탄다면 다시 충무로에 가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너무 멀다.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거장을 찾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복잡하기만 했다. 시간도 꽤 흘러 점심 때가 지났고 조카도 지쳐 보인다.

"고모, 왜 기차 안 타?"

"응, 지금은 전주 가는 기차가 없어. 또 기차를 타면 빙 둘러서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속버스를 타면 바로 가니까 빨리 가거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는 거야."

"기차 타면 빙 둘러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속버스는 바로 가니까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에 바로 가서 전주 가는 버스를 타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한걸아, 힘드니? 다리 안 아파?"

"응, 조금 아파."

나는 버스 정거장 찾기를 그만 두고 택시를 타기로 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서 4시 20분 전주표를 끊고, 김밥 하나와 비스킷, 오렌지 주스와 딸기 주스를 하나씩 샀다. 조카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딸기 주스를 샀다고 좋아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고모,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해 볼까? 복숭아, 포도, 딸기, 자두, 파네이플이야."

'뭐? 파네이플! 파인애플이겠지... 그런데 어째 좋아하는 게 나랑 비슷하네!'

"한걸아, 파네이플이 아니고, 파인애플이야."

"아, 맞다. 파인애플이다."

4시 20분이 되어서 우리는 버스를 탔다. 조카를 창쪽에 앉히고 나서

"한걸아, 너무 큰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아저씨들이랑 아주머니가 주무시는데 방해가 돼.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나 주스 먹으면 안 돼?"

"먹어. 김밥도 먹어."

같이 김밥을 먹고 있으니 버스는 터미널을 빠져 나와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한걸아, 저게 뭐야?"

"바다."

"아니야. 강이야, 한강."

"아아, 그럼 한강이 한바다가 되는 거야?"

"아니, 한강이란 다른 강이 다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는 이름이 따로 있어. 동해, 서해, 태평양,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

"그럼 한강보다 바다가 더 큰 거야?"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강이 제일 큰 강이야. 진주에 가면 남강이 있잖아. 그건 한강보다 작지."

얼마 가지 않아 조카는 졸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내 다리 위에 올리게 하고 누었다. 그리고 나도 잠시 뒤에 눈을 붙였다.

2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금강 휴게소로 들어섰다. 차내 방송에서 15분간 쉬다고 했다. 나도, 조카도 잠이 깨었다.

"고모, 여기도 고속버스장이야?"

"뭐? 고속버스장! 아니야. 여기는 휴게소야. 우리가 너무 멀리 가니까 잠시 쉬다 가라고 만든 곳이야. 한결이 '쉬'도 하고, 저녁도 먹자."

조카는 고속버스터미널이란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고속버스들이 죽 늘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그 말, 주차장이란 말에서 생각을 끌어 왔을까? 어쨌거나 '터미널'을 '장'이라고 한 말이 그리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화장실에 갔다가 김밥과 가락국수를 먹고 차로 돌아왔다.

다시 버스가 달렸다. 창밖을 보니 아카시아꽃이 한창 피었다.

"한결아, 저기 하얀 꽃이 잔뜩 핀 나무 있지? 저걸 아카시아라고 하는 거야. 아카시아고 해도 돼."

"어떤 거?"

"지나가 버렸어. 아! 저기, 저기 있다. 여기 또 있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온통 아카시아로 뒤덮여서 온 산이 희끗하게 보였다.

"저게 아카시아야?"

"응, 흰 꽃 핀 나무."

조카는 이제 분명하게 아카시아를 알았는지 아카시아가 나올 때마다 나를 불러댔다.

"고모, 저기 또 아카시아다..... 고모! 저기....."

가다가 보니 나뭇잎이 한들한들 바람 따라 움직였다.

"한결아, 지금 바람에 바람이 불게, 안 불게?"

"으.....응, 불어."

"어떻게 부는지 알았어?"

"그냥."

"에이, 엉터리. 잘 봐.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지?"

창밖을 가리키니 마침 나뭇잎이 안 흔들렸다.

"좀 있어 봐. 봐, 이제 흔들리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고모, 아카시아가 왜 안 나와?"

"가다가 보면 또 나올 거야."

그런데 갈수록 아카시아꽃은 다 지고 잎만 무성한 아카시아나무뿐이다. 대신 포플러가 바람 따라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결아,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 있지? 저거!"

"어디?"

"저기, 지나갔다. 있어 봐. 또 나올 거야..... 나왔다. 저 산 위에 있지? 잎이 반짝반짝 하는 거."

"어, 봤어."

"그게 포플러야."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조카가 두 손을 들어 손가락을 썩 펴고, 손등이랑 손바닥을 번갈아 흔들어 보였다.

"어."

"참 예쁘다."

계속 창밖을 보고 있으려니 포플러가 아카시아만큼 줄지어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조카를 보고 "한결아,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름이 뭐겠어?"

"에이 씨, 까먹었다. 모르겠어."

조카는 잠깐 생각하고는 부끄럽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문득 나는 올케언니가 한결이한테 학습지를 시키는데, 국어는 국민학교 2학년 수준의 것을 풀고, 산수는 1학년 것을 하고, 영어는 가르쳐 주고 금방 물어봐도 잊어버린다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올케언니는 그 나이의 아이들은 한창 말을 배우는 때니까 영어를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것보다 지금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아이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우리 말 살리는 일을 하니까 외국어에 대해 좋게 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10시에 진주에 다다랐다. 그때까지 차 안에서 조카는 잠도 안 자고 5분이나 10분마다 몇 시냐고 물어댔다. 어린 아이를 5시간 40분 동안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고문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짜증 한번 안 내고 더구나 멀미도 안 하고 와 주어서 나는 너무 기뻐하고 또 고맷다.

진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카는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나보고 쓰라 하고 저는 웃도리에 달린 모자를 썼다. 우산도 없고, 버스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 또 택시를 탔다.

진주교를 건널 때 내가 혼잣말로

"아! 웬일로 다리가 텅텅 비었네. 일요일 밤인데.... 비가 와서 그런가?"

"다리가 퐁퐁해?"

조카가 내 말을 되묻는다.

"아니, 다리가 퐁퐁 빈 것이 아니라, 텅텅 비었다고."

"퐁퐁이 아니고 텅텅?"

"응."

집에 다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 나 신한걸이예요!"

한밤중인데 이 녀석이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셨다.

"아이가, 한걸이가!"

어머니는 아주 깜짝 웃으신다. 우리를 기다리며 묵주신공을 드리다가 깜짝 잠이 들었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보니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긴장이 딱 풀렸다.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나니 오후는 첫째 시간에 수업이 있다고 하며 서두르고 있었다. 오후 방에서 놀고 있던 조카가

"고모, 고모가 팔찌로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1등, 할머니가 2등, 내가 3등, 삼촌이 4등, 그 다음이 고모야."

"...."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점연쩍게 웃고 말았다. 조카는 오후 책상 앞에 가서 걸상을 밟고 책상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 있는 커다란 깃발을 보며 거기 있는 글자를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읽었다.

"진주 지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그 깃발은 오후가 들어있는 동아리 깃발이다.

"아니야, 진주 지구가 어딴어? 지구 안에 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건데."

"어? 아하! 하하하..."

나는 크게 웃었다.

"그래, 한걸아, 니 말이 맞아. 저건 틀린 말이야."

"으응, 우주도 하나지? 우주 안에 지구랑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있는 거지이."

"그래 그래."

신이 난 조카를 데리고 어머니는 시장에 가시고 나는 선생님을 뵈러 학교로 갔다.

다음날 아침, 나는 2시 40분 서울행 버스표를 끊고 후배 둘을 만나러 다시 학교로 갔다. 조카도 데리고 갔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또 진주교를 건넜다. 조카가

"다리가 텅텅 비었네."

한다.

'하아, 요녀석 봐라. 잊어 버리지도 않았네!'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아저씨 한 분이 나한테

"아들이요? 동생이요?"

하고 물었다.

"아니예요, 우리 고모예요."

깜짝 놀란 나 대신 조카가 얼른 대답했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너무 젊다 했더만, 근데, 우찌 그리 닮았노?"

학교에 다 왔다. 약속 장소인 교양학관 앞에서 후배 한 명과 선배를 먼저 만났다. 다른 한 명을 기다리느라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조카는 앞에 있는 잔디 밭에서 놀았다. 잔디 밭에 바위와 나무가 띄엄 띄엄 있는데, 조카는 바위를 타고 뛰어 다니며 놀더니 "고모, 민들레야! 여기 민들레가 피어 있어!"

그 큰 목청으로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있던 학생들이 다 웃었다.

"초여름이 다 되었는데, 민들레꽃이 남아 있나? 저 녀석이 토끼풀 보고 민들레라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는 일어나서 오동나무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조카에게 갔다.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어, 진짜 민들레네!"

"여기도 있다. 민들레, 두 송이다. 거 봐, 내가 민들레라고 했잖아. 아까 똥똥똥이도 봤어."

"똥! 똥똥이?"

우리를 보고 있던 학생들이 더 크게 웃어댔다. 순간 언젠가 조카가 자기 집에서 나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흰 나비가 나오자 저거 무슨 나비다 하고 소리치던 일이 생각났다.

나는 후배 한 명도 마저 만나고 학교를 나섰다.

"한걸아, 인제 고속버스장으로 가는 거야."

"인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응."

학교 교문까지 걸어가는데 꽃이 진 자리에 하얀 솜방망이처럼 씨앗을 달고 있는 민들레가 자주 보였다. 조카에게 그것을 붙여 보게 하였다. 조카는 재미가 나서 보는 대로 꺾어다 후후 붙어댔다.

"고모, 고모도 붙여 봐. 재밌어."

"한걸아, 그게 민들레씨야. 니가 그렇게 붙여주면 그 씨들이 멀리 날아가서, 땅에 앉아서 내년 봄에 또 민들레꽃으로 피는 거야."

"내년에 또 피어?"

"응."

조카는 민들레가 더 나오지 않자 내 손을 잡고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씨 씨 씨를 뿌렸쥬. 꼭꼭 물을 주었쥬."

하룻밤, 이틀밤, 뽕뽕로롱, 뽕뽕로롱,

씨앗이 났어요."

나도 조카를 따라 불렀다.

"씨 씨 씨가 났어요, 꼬옥 꼬옥 물을 주었쥬."

하룻바람, 이틀바람, 뽕뽕로롱, 뽕뽕로롱,

꽃이 피었어요!"

■ 여름철 특집

올 여름엔 떠나보자!

구로지역 교사 답사모임

♪ 여럿이 가면 좋은 곳

전남 강진 다산 정약용 유배지

교통편 : 영등포역 -> 영산포역 -> 버스로 강진

경로 : 강진의 김영랑 생가 -> 굴동마을의 정약용 유배지인 다산초당 -> 백련사

땅끝 마을인 해남의 운고산 고택과 대흥사를 보도록 한다.

*** 다산 정약용 유배지인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목에 '초당'이라는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며 주인에게 다산에 관한 얘기를 묻고 청해 들으면 좋다.

백련사에서 내려오면 넓은 강대밭이 있는데, 강대밭에 들어가 기념사진은 필수적으로 한장 찍어!

경남도 정선의 아우라지강과 이효석 생가

교통편 : 청량리역 -> 여량역 -> 봉평

경로 : 정선의 아우라지강 -> 이효석 생가 -> 팔석정

영월의 단종 유배지 청령포 -> 고씨동굴

*** 여량 땅 아우라지강 근처 '촌산장' 여관에 묵으면 주인 아주머니의 수석에 얹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잘하면 식혜도 먹을 수 있다. 아촌마가 일러준 '달동네'식당에 가면 가짓수가 많고 맛있고 푸짐한 3,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다.

이효석 생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메억꽃 펴 무렵'에 등장하는 물레방앗간에 들러 동네 노인들이 계시면 이효석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겠다.

봉평역에서 메억막국수타 갓자숙을 먹고 고씨동굴 근처에서 빵러자만한 쪽먹을 사 먹고 선물로도 마전하면 O.K.



♪ 혼자나 둘이 가면 좋은 곳

대구 압록 해인사

교통편 : 대구역 -> 시외버스 터미널 -> 해인사

경로 : 해인사 -> 근처의 암자 4,5곳

해인사 절 입구에 들어가기 전 허우로 암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비구니스님(어승)의 암자가 있는데 한두명뿐이면 돈을 주고 묵을 수 있다.

채식으로 된 저밥을 먹을 수 있고, 새벽예불을 보고 여러 암자를 둘러보아, 천천히 걸어 풍치가 다보면 이전저전 생각에 저절로 찾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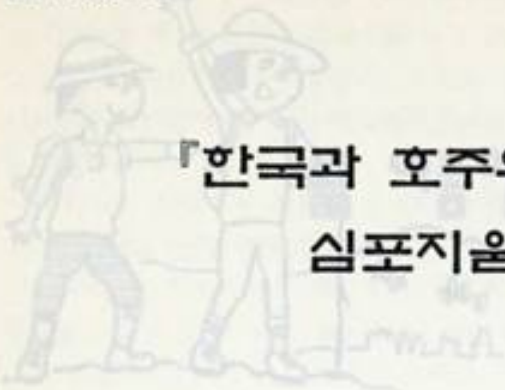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곳 - 청계산의 청계사(서울근교)

교통편 : 안산행 전철 -> 인덕원 역 하차 -> 청계사행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청계사로 가는 마을버스(혹은 시내버스)를 타고 10분쯤 가다 시골길로 들어서면 내려달라고 해 걸어간다. 학원이 늘어섰고, 논, 포도 러수원, 발농사 지은 것을 보면서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가량 걸려 청계사가 나온다.

약수를 마시고 경내도 둘러보고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타도 되고 다른 산길로 내려타도 좋다.

■ 현장보고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심포지움을 다녀와서

조선경 / 교육연구부

지난 6월 7일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와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주최로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한국과 호주의 보육, 유아교육 체제에 대한 설명과 호주의 보육시설 인준체제, 그리고 한국의 보육시설 평가 척도 개발 및 시행 등을 그 내용으로 했는데 이 글을 통해 그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몇가지 추려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호주의 보육 및 유아교육체제 - 멜번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인 Jillian Rodd가 발표

호주는 현대화되고 다문화적인 서구 국가로서는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유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깊은 전통과 강한 신념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50년대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호주사회의 여성이 가지는 역할과 기회의 변화는 유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는 서비스의 확대, 특히 보육의 확대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호주 역시 보육과 프리스쿨(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유치원)이라는 분리된 체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Rodd는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요구되는 훈련의 형태, 구성원의 자격, '보육'이라고 느껴지는 것과 '교육'이라고 느껴지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철학과 지향점의 차이를 갖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추세를 비판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이념, 습관, 태도를 모르고서는 어린이를 돌볼 수 없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교육을 할 수 없다."하는 Ebbeck(1991)의 말을 인용했다. '보육'이든 '교육'이든 부모들이 어떤 이유로 선택했든지 간에 네살짜리 아이는 사실상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프리스쿨을 포함한 유아 서비스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영리단체, 정부 단체들에 의해 후원 받는다. 그러나 후원 단체가 어디든지 유아 서

비스는 연방이나 주정부, 지방 정부로부터 각각 고도의 운영관리, 통제 및 감사를 받는다 (이후에 인준체제에서 다시 논함).

전통적인 프리스쿨 서비스는 두개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4일 이상 한 주당 약 10시간이며 한번에 2시간 30분이다. 이 시간배정 형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고립된 농촌지역이나 이동가옥, 신주거지역, 건설현장의 아동을 대상으로 훈련받은 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특별히 차에 장치해서 이 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있다.

호주의 보육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데 생후 6주에서 취학 아동까지 그리고 국민학생에 대한 종일 보육, 시간제 보육, 일시적 보육, 연장보육과 응급보호 등이 있다.

주로 아동의 발달을 돕는 보육을 제공하는 센터중심 보육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주간보육원 : 갓 태어난 아기에서 5살까지의 30~60명 가량 함께하는 종일 또는 시간제보육
- 소집단센터 : 25~30명 가량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종일, 시간제 보육
- 부모협동센터 또는 지역센터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소규모센터
- 시설보육 : 운영비용과 이윤까지 부모의 납부금으로 운영되는 센터로서 질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 직장보육센터 : 회사고용인들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센터.

또 세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선호하는 가정중심 보육이 있는데 이는 4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롭고 가정과 비슷한 비형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각 주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가지고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놀이그룹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놀이그룹에서 지원과 보조를 한다. 놀이그룹은 세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는 자치기구라 할 수 있다. 부모와 그 유아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이나 지방의 회합지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사회적 교류 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서로 주고 받는다.

2. 호주의 보육시설 인준체제의 적용에 있어서 전국보육시설인준심의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 NCAC)와 그 역할

- 호주 전국보육시설인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Quentin Bryce가 말제

호주에서는 1993년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통제와 기능을 하는 인준제

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보육시설인준심의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94년 현재 보육시설 행정관, 보육을 위한 부모회 부회장, 보육센터 관장, 노동과 보육 자문서비스 매니저, 유아교육학부 학부장, 아동가정국, 보건복지부 전국담당 운영자 등이다. 즉, 행정가, 부모, 시설 운영자, 학자가 함께 위원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위하여 자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평가와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시설들과 부모들을 함께 참여시킨다. 셋째, 지역사회를 위해 아동보육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한다.

NCAC에 의해 결정되는 질적 개선과 인준체제에는 5단계가 있다.

제1단계 등록 : 1994년 1월 등록을 시작하여 현재 호주내 보육시설의 95%가 등록한 상태이다.

제2단계 자체평가 : 종사자와 부모들이 시설내의 4가지 중요한 활동 영역에서 철학이 반영되고 목적이 성취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질적 개선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4영역은 종사자, 아동, 부모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영양, 건강, 안전/ 시설운영관리와 종사자 발전이다. 전체 52항목에서 얼마만큼 기준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그 시설의 조사 간격이 달라진다. 즉 보육의 수준을 기본적 보육, 상위보육, 최상보육 세가지로 나누어 기본적 보육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매년, 상위보육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2년마다, 최상보육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3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3단계 외부평가 : 자체위원회는 시설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될 때 평가자가 와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NCAC에 신청한다. 평가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임명하고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프로그램은 1주간이다. 평가자들은 종일제 보육시설에서의 경험과 유아교사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평가자의 역할은 시설의 자체평가를 검토하고 안내서에 진술된 각 원칙에 의거하여 질의 수준에 대한 시설의 평가를 확인한다. 보육의 수준이 인준의 요구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 시설에 대한 후속적인 방문평가가 이루어진다.

제4단계 중재자에 의한 조언 : 중재자들은 시설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활동계획, 그리고 평가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시설이 인준되어야 하는지를 NCAC에 조언한다. 시설이 아직 인준에 요구되는 기준을 성취하지 못한 영역에서 중재자는 그 시설이 만족스런 활동계획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 후의 후속적 평가에서 만족스러운 진보를 했는지를 본다.

제5단계 NCAC에 의한 결정 : 4단계까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시설의 인준을 결정한다.

참고 : 보육의 52개 원칙과 기준들

NCAC 원칙은 아래에 서술된다. 핵심적 원칙(즉, 인준을 위해 반드시 '양질'이 요구되는 것들)은 이탤릭체로 나타냈다.

Part A : 상호작용

Ai : 종사자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 1 종사자는 아동들과 따뜻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 2 종사자는 모든 아동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개별적 요구를 조절해 주고자 한다. :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존중한다.
- 3 종사자는 모든 아동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개별적 요구를 조절해 주고자 한다. : 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대한다.
- 4 종사자는 지도와 훈육시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
- 5 종사자는 아동들의 감정과 요구에 반응적이다.
- 6 종사자는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 7 종사자는 아동들의 발달하는 능력에 대해 존중하고 자아존중감과 독립심을 길러준다.
- 8 종사자는 아동들의 호기심과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아동들과 상호작용한다.
- 9 종사자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Aii : 종사자와 부모들간의 상호작용

- 10 보육시설에 관해 모든 가족들에게 말과 글로써 의사소통한다.
- 11 부모와 종사자들간에 활발히 정보교환한다.
- 12 새로운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있다.
- 13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Aiii : 종사자들간의 상호작용

- 14 종사자들은 서로 잘 의사소통한다.
- 15 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을 존중한다.

Part B : 프로그램

- 16 프로그램은 보육시설의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도록 계획된다.
- 17 프로그램은 보육시설이 보관하는 발달기록에 따라 개개 아동에게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 18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선택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19 프로그램은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
- 20 프로그램은 대소근육 운동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켜준다.
- 21 프로그램은 창의성발달과 흥미감을 촉진시켜준다.
- 22 배변훈련절차는 개별적 요구에 부합되며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한다.
- 23 낮잠시간과 옷입기 절차는 휴식, 안정, 자조능력에 대한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 24 식사시간은 즐겁다.
- 25 프로그램은 개별적, 집단적 경험을 폭넓게 제공한다.
- 26 일과계획은 아동들의 요구, 능력, 흥미를 반영한다.
- 27 일상적인 활동은 융통성이 있으며 발달적으로 적합하다.
- 28 활동들간의 이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 29 프로그램은 지적발달을 촉진한다.
- 30 프로그램은 언어발달을 촉진한다.
- 31 프로그램은 균형적이고 발달적으로 적합하다.
- 32 프로그램은 특수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 33 프로그램은 진술된 목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Part C : 영양, 건강, 안전

- 34 종사자들은 개개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35 종사자들은 아동들에게 실내의 놀이와 수면을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36 음식은 아동의 일상적인 영양 요구량과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된다.
- 37 식사시간은 건전한 식습관 형성의 기회가 된다.
- 38 음식은 위생적으로 준비·저장된다.
- 39 종사자는 전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위생원칙을 지킨다.
- 40 종사자는 위생에 관한 간단한 규칙을 따르도록 아동을 고무시킨다.
- 41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들은 아동들의 근처에 두지 않는다.
- 42 건물과 설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 43 보육시설은 아동들의 면역기록을 보관한다.
- 44 보육시설은 위생, 의학, 비상사태, 사고에 대한 문서화된 대책을 가지고 있다.
- 45 종사자는 의학, 비상사태, 사고절차에 익숙하다.
- 46 종사자들은 항상 아동들을 감독한다.
- 47 건강과 기타 관련정보는 종사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Part D : 시설 운영과 종사자 발전

- 48 종사자들과 부모들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한다.

49 새로 온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철학과 목표에 대해 소개 받는다.

50 보육시설은 종사자를 위해 정기적인 학습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52 종사자근무기록은 보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되어 있다.

53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는 종사자와 부모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의 평가관련 연구가 몇가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보호와 교육의 질을 진단·평가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련하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황해익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육시설 평가척도」를 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 평가척도가 현장에서 발전적으로 활용되는 데는 후속조치와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현실과 철학에 맞는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과 관심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 평가척도의 부문 및 평가문항의 내용

각각의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 및 문항들의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환경

(1) 실외환경

보육시설은 쾌적한 환경에 위치해 있으며, 놀이터의 경우 면적이나 시설·설비가 법적 규정에 부합되며 기타 시설·설비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안전하다.

(2) 실내환경

실내공간의 면적이나 실별 배치가 유아에게 적합하며, 보육실, 화장실, 목욕실, 양호실, 조리실, 교사실 등의 시설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3) 시설설비 및 관리

시설·설비가 안전하고 보수상태가 양호하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냉난방시설 등이 적절하고 주요한 시설·설비관련 문서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다.

2) 종사자

(1) 근무여건

종사자들의 업무가 적절히 분담되어 있으며, 휴가와 호봉 확정, 보수 및 제수당 등이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휴식예의 배려, 배상책임예의 가입 등 후생복

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종사자관리

종사자들의 임용과 해임, 자격 및 배치 등이 관계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사관련 주요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신규임용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다.

(3) 종사자관계

운영자는 업무에 충실하고 신뢰받으며, 종사자들 간의 관계는 상호 긍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종사자발전

종사자를 위한 연수나 워크숍 등의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며, 타당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3) 운영관리

(1) 원아관리

원아의 모집과 등록, 오리엔테이션 관련 계획이 세워져 잘 실시되고 있고, 보육일지와 원아에 관한 각종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보육대상의 연령과 입소순위, 정원과 학급편성, 보육시간 등이 관계법규의 규정에 부합된다.

(2) 재정관리

예산·집행·결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보육료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부모에게 통지되고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3) 사무관리

운영에 관한 각종 사무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보관되어 있으며, 사무관련 업무가 유관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하에 원활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4) 보육시설 발전관리

시설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전체적인 평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4) 교육과정

(1) 교육계획

시설의 철학과 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을 고려한 교육목표 하에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조직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전체원의 그리고 각 학급별 교육계획안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대 유아의 비율이 적절하고 특수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2) 교육과정운영

계획된 활동들은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 그날의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며, 교사는 유아의 참여와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요구에 민감하며 긍정적이고 일

관적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한다.

(3) 교육자료

교재·교구는 양적으로 충분하고 다양하며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잘 정돈되어 있고 내용에 따라 실제적인 경험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아들이 환경구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4) 교육과정평가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적절히 실시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결과는 부모나 종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5) 영양, 건강, 안전

(1) 영양 및 급식

영양소의 배합, 다양한 조리법, 유아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 있는 급간식 계획이 수립되어 위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급간식 즐거운 분위기에서 적절한 식습관 및 식사기술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2) 건강 및 위생

원아들의 건강진단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질병 및 예방접종, 비상약품 등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원아의 취침과 휴식, 청결교육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육실, 교재·교구, 기타 시설 및 설비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3) 안전

도난 및 화재 등의 긴급사태와 응급조치용 시설 및 대책이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절히 마련되어 있고 실내외 시설은 유아의 안전이 고려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6)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 가정과의 연계

가정의 시설에 대한 협조 및 참여가 활발하고, 가정에 대해 시설은 체계적인 부모교육이나 기타 보육관련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원봉사자와 참관자 및 실습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인사의 적절한 참여와 타 보육시설이나 인근학교, 기타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작은기획 - 자연과 어린이(5)

“오늘은 원곡공원 가요!”

- ‘원곡공원’을 찾아서 -

김설이 / 안산 진달래동산어린이집

진달래동산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센 날이 아니면 매일 매일 바깥놀이를 간다. 놀이터 두 곳과 국민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골라 가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는, 아이들 걸음으로 25분 정도가 소요되는 원곡공원이다. 다른 세곳에 비해 먼 곳이기 때문에 주로 자원활동가가 많이 온 날에 물과 간식, 때로는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서너시간을 놀다가 온다.

원곡공원 가는 길엔 흥미거리가 너무 많다. 아이들은 종종 짝의 손을 쥘고 장난감 가게, 길가의 개들, 선물의 집, 문방구 뿔기 앞으로 달려 가지만 매일 나가는 덕분에 어린 아이들도 잘 걷는다. 저희들끼리 동요메들리를 부르며 즐겁게 걷는 것을 보면 항상 나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원곡공원 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인 고장난 신호등이 있는 찾길을 건너 90개도 넘는 계단을 올라가면, 야산과 놀이터 잔디밭과 산책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원이 나타난다. 아이들은 공원에 도착하는 대로 자기 취향에 따라 놀이기구를 골라 타거나 나즈막한 나무 위에 올라 가거나 하며 논다. 지원이같이 털피떡 흙바닥에 앉아 매일 하는 흙놀이나 개미놀이만을 고집하는 아이도 있지만……. 노는 틈틈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한 입씩 물고 가는 것도 잊지 않는다. 선생님의 냉커피나 홍차에 미련을 못 버리고 선생님 걸을 끝내(?) 떠나지 못하는 영아들도 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산책이다. “산책할 사람…….” 하면 우루루 아이들이 몰려 드는데 엉덩이가 유난히 무거운 녀석들도 엉악없이 끼어 있다.

산책로는 공원을 한 바퀴 빙 도는 코스인데 산책로 옆엔 야산이 펼쳐져 있어, 소나무, 진달래, 개암나무, 상수리 등의 나무들과 쭉, 절경이, 명아주 등등의 웅만한 풀들은 다 있다. 아이들은 역시 먹는데 관심이 많아서인지, 오늘은 무뚝뚝한 건희가 여름이라 옷 자란 썩을 뜯어다가, “뽕뽕님, 뽕이예요.”하는 것이었다.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있어서 잎파리를 따서 가위바위보에 이긴 사람이 잎파리를 손가락으로 탁 뺨겨내는 놀이를 했다. 선생님보다도 가위바위보를 더 잘 하는 졸업생부터(8살 호용이도 쫓아왔다) 3살 가림이까지 재미있어 했다.

드디어 김밥 도착, 아이들과 함께 등나무 그늘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 수박도 한쪽씩 먹고 쉬고 있는데 먼저 식사를 끝낸 아이들이 떨어진 농금을 발견해서 갑자기 아이들은 농금을 모으

기 시작했다. 욕심이 나서 나무에 농금을 따는 녀석들이 많았는데 익으면 따지고 말리면서도 아이들의 채집의 본능(?)을 막는 것 같아 속상했다. 우리 어려서는 마음대로 모으고 따면서 놀던 것 같은데……. ‘감상용 자연’이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진달래에 갈 시간이 되어 공원 수도에서 씻고 짝을 지워서 집으로 왔다. 오늘은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영아들은 졸면서 걸었다. 큰 애들도 땀을 흘리며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선생님, 아직 다 안왔어요?”라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다. 한잠만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싱싱하게 뛰어 놀 것이라는 사실을…….

*** 주의사항 :** 바깥놀이에 항상 위험이 따른다.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어른 한 명이 그 아이를 담당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먼 곳엔 가지 않는다. 출발 전후엔 반드시 저희들끼리 짝을 짓게 하고(스스로에게 맡겨야 정말로 친한 아이들끼리 짝이 되어 오가는 동안 변동이 없다). 잠시 앉아 있다가 출발하여 지나친 흥분을 가라 앉힌다. 맨앞에도 교사, 맨뒤에도 교사가 서서 줄은 아니더라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차가 다니는 길이 나오면 일단 멈추고 모두 함께 건너는 훈련을 한다. 길에서 뛰지 않도록 지도한다(걸는 박자에 맞춰 ‘가자 가자 가자 원곡공원 가자’ 등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도 좋고 너무 뛰는 아이는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가차없이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원 · 곡 · 공 · 원

소재/ 연선시 원곡동
교통편/ 전철 4호선 연선역 역지
- 여교 배스니 타고 연 정거장면 7면 댐
접장르/ 모로
프로그램/ 연정모

■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자] 소모임의 첫 바깥 나들이 보고서

'밖으로 나가놀자(이하'박·자') 소모임에서 첫 바깥나들이를 나갔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아침에 청량리역에 모여(정말 꼭두새벽부터 서둘러) 시골길을 달려 광릉 수목원에 도착하니 9시 30분, 두레생태기행팀을 만나 우선 나무박물관에 입장했습니다.

두레생태기행은 약 70명의 회원을 가진 자연탐사팀인데, ⅔가 중고등학교의 생물선생님이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과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8회에 걸쳐 자연탐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야생화'였는데, '박·자'의 지난 모임에서 우리나라에 흔히 피는 들꽃과 풀에 대해 공부했었기 때문에 마침 딱 맞는 주제였습니다. 나무들과 벌레, 동물표본이 있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줄음이 쏟아지는(!) 강의를 들은 후 드디어 숲속으로!

우리가 갔던 숲은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쪽쪽 뿜은 나무숲 사이를 오솔길로 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전나무숲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밑에선 풀도 자라지 못하고 있었고, 자작나무 숲은 온색, 소나무숲은 초록색, 하는 식으로 가꾼 굉장히 큰 숲이었습니다(수목원 전체는 660만평).

약용식물과 야생식물들을 따로 모아놓은 비탈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전으로 그렇게 헛갈리던 노란꽃들(뽕나무, 켄지바, 좁쌀풀, 살바귀)을 구분할 수도 있었고 하늘나리와 동자꽃 등의 우리 들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밭 밟고도 그냥 숲을 다니면서 비탈밭에도 없는 들꽃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렌지쥬스색 백합인 원추리, 흰 구름같은 어수리, 그리고 진분홍 꼬마꽃들이 초록 꽃대에 실타래처럼 돌아가며 피는 타래난초 등.

사슴벌레와 장수하늘소도 잡고 대벌레(대나무같이 마디가 있는 초록색 벌레)들이 집단으로 찍집기 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상수리나무와 참나무 자작나무를 구분하진 못하겠지만 자연과 함께 한 상쾌하고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계기도 되었구요. 원래도 바깥나들이를 좋아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일이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 건강하게 삽시다

감기와 감기의 합병증-1



이홍진

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감기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병일 것이다. 한 평생을 살면서 수십회는 걸려야 되는 병이 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흔하고 별로 무서워 하지 않는 병이지만 초기에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합병증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그러한 점에서는 매우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감기란 진단처럼 애매모호한 진단도 없다. 흔히 열거되는 감기의 증상은 열(섭씨 38.5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이하의 미열), 콧물, 재채기, 기침, 두통, 근육통(흔히 몸살이라고 함) 등을 들 수 있다. 감기란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상기도 감염이다. 기도는 코와 입의 끝부터 폐까지를 말하는데 상기도란 그중에서 윗부분 즉 코와 입을 말하며, 기관으로 들어가면 이미 상기도는 끝난 셈이다. 따라서 상기도 감염이란 코, 입 및 인후부의 염증을 말하며, 비염과 인후염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비염과 인후염을 일으키는 균은 인후염 및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연쇄상구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각종의 바이러스들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으키는 증상이 특히 심하고 합병증을 많이 일으키므로 흔히 독감의 대명사처럼 불린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약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므로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경우 연쇄상구균에 의한 편도선염을 제외하고는特效약이 없는 셈이다(이 경우에는 페니실린 계열의 약물이特效약임). 현재까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약물로는 비타민C가 있다. 따라서 감기의 치료는 괴로운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이 주종을 이뤄 콧물을 없애는 항히스타민

제, 열과 통증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대증적인 치료를 하여 증상을 호전시켜주면 상기도 감염 자체는 자연 치유된다. 대부분의 감기 환자는 이러한 경로를 밟아서 3-4일 안에 호전된다.

그러나 일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연 치유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여러가지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괴롭힌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상기도 또는 하부 기도에 여러가지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합병증들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한다.

코는, 뒤로는 인후부를 통하여 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기도를 통하여 폐와 연결되어 있다. 위쪽으로는 비루관(눈물이 고로 흘러 내릴 때 통과하는 관)이 있고, 유스타키안관을 통하여 중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개의 부비동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감기가 1주 내지 10일을 넘어 오래 지속되거나 기침, 가래가 심해지는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겨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균에 의한 중복 감염이 된 경우들이며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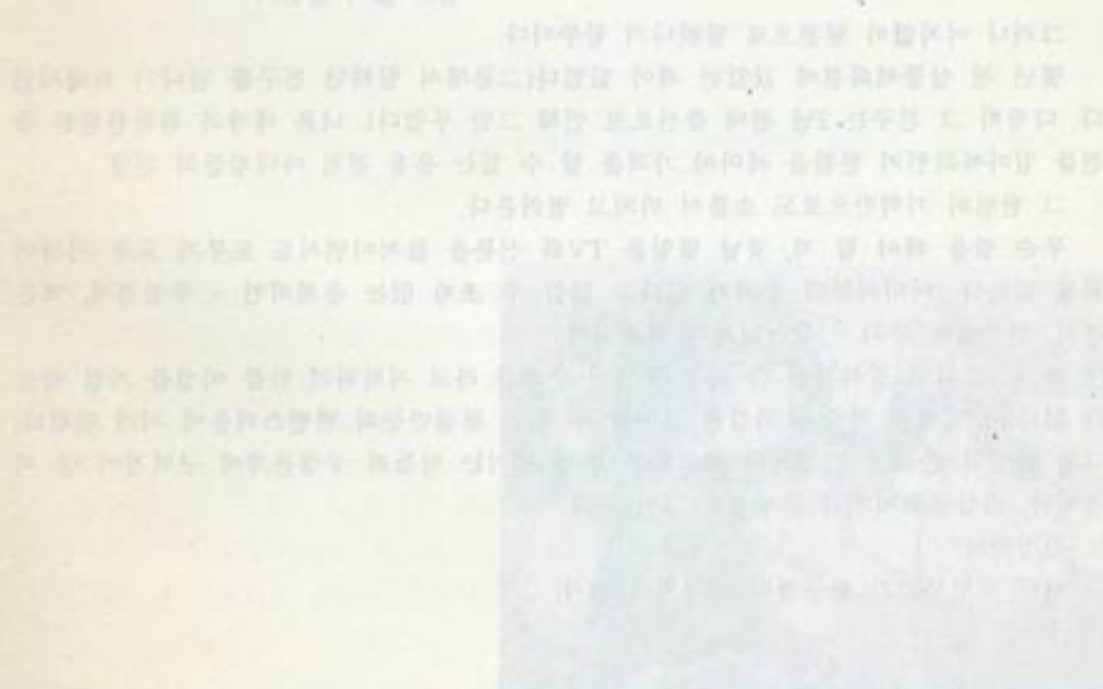
그 중에서 제일 흔히 보이는 합병증은 부비동염이다. 부비동염이란 코를 둘러싸고 있으며, 코와 통해 있어서 소리의 공명등의 역할을 하는 장기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흔히들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질환이다. 부비동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노란 콧물, 심한 고막염, 밤중과 새벽에 심해지는 기침과 가래, 반복되는 감기증상 및 고개를 숙일 때 심해지는 두통 등이다. 한번 부비동염이 되면 그 치료기간이 보통 2주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약간의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치료를 너무 빨리 중단하면 바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감기로 보고 치료하다 보면 치료기간만 길어지고 항생제에 내성만 생겨 치료에 잘 반응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X-선 검사로 확인을 한 후에 완치되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아 만성 부비동염이 된 경우에는 부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상악골의 발육에 영향을 주어 얼굴모양의 변형을 가져와 들창코가 되고 멍청한 표정의 아이가 되기도 한다.

귀의 고막의 안쪽은 유스타키안관을 통하여 코와 연결되어 있다. 이 관의 주된 역할은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의 움직임에 의하여 열려 중이속의 공기압을 주위의 압력과 같도록 조절해준다.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고개를 올라가면 귀가 멍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안다. 이는 주위의 압력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중이의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때 입을 움직이거나 껌을 씹는 경우 편안해지는데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관이 열려 압력의 평형

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기도 감염이 있어 이 관에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으로 관이 열리지 않으며, 따라서 귀의 통증 및 두통이 나타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중이의 안에 세균에 의한 이차감염이 생긴다. 이 상태가 중이염이다. 이러한 중이염도 부비동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기간이 2주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만약 치료가 지연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청력의 소실이 있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므로 흔히 놓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의 소리를 자꾸 크게 틀거나 가까이 가서 보는 경우에는 한번쯤 의심해보아야 된다. 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심하게 보채거나 귀를 잡아 당기며 우는 경우도 있다.

염증에 의하여 비루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곱이 끼며, 눈이 충혈되는 등 결막염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감기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약간의 안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에는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염, 복통 및 라이증후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 시사말뚝이

더 이상 이성을 지킬 방도가 없다

편집부



한산한 도서관 구석에 앉아 이 시대의 진혼곡을 듣는다.

얼마나 관념적인가. 그러나 육화된 말라. 차라리 이것이 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어찌랴.

.....
늘상 이번호엔 어떤 글을 써내야 될까? 복잡하고 정신없는 정치상황이 아닌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뜻뜻한 이야기가 시사성을 띄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그러나 여지없이 뒤틀려서 밀려나기 일쑤이다.
몇년 전 삼풍백화점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그곳에서 일하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그 친구는 2년 전에 출산으로 인해 그만 두었다). 너른 매장과 휘황찬란한 물건들 얼마짜리인지 한참을 세어야 가격을 알 수 있는 옷을 걸친 마네킹들의 진열.

그 한번의 기억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떨려온다.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몇날 몇일을 TV와 신문을 들춰이면서도 도무지 도통 시작이 되질 않는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총체적인 - 부실경제, 썩은 정치, 인간성의 붕괴 - 삼위일체의 작품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이상 무엇이 문제다 라고 지적하리 만큼 이성을 지킬 방도가 없다. 수백명의 목숨과 과감히 맞바꿀 수 있는 물질만능의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그와 은밀히 손잡고 기생하며 먹고물을 받아 챙기는 이들의 공생관계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비상구조체계의 문제점은 그만 두자.

진정하자!
이런 대형사고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던가.
.....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방도가 없다. 숨길 수도 핑계될 수도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일까?

상상조차 못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고급만을 내세웠던 백화점 건물의 무너짐이 우리들의 두 어깨를 내리눌러 내리는 느낌을.

너무도 상투적이고 재미없는 교과서적이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선 건설업자도, 경영자도, 판매원도, 미화원도, 정치인도 나올 수 있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인간을 존중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같은 치욕스런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

너무도 먼, 아니 어찌면 얼른 다가올 희망을 가져본다.
그러나 그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 어떤 핑계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런 채찍이 통용되고 과거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미래만 있다면 말이다.
남들은 어쩔 어이없게 들릴 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일단 접어두길 바란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글마당

탁 아 소 별 곡

[들꽃어린이집]편

이야기 하나 - 동물원 이야기

탁내 초롱이만 빼놓고 들꽃 친구들이 손에 손 잡고 김밥 싸서 동물원 견학 간 날 정후는 마냥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우리 안에서 어슬렁거리며 위용을 자랑하는 호랑이를 보고 하는 말,

"멍멍아..... 멍멍아....."

어머 호랑아! 너 어떡하니 백두산을 누비던 동물의 왕 후예가 어찌다가 정후 눈에는 멍멍이로 비치는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니.

이야기 둘 - 우리 어린이집은 누가 만드셨나요?

어린이집 차를 타고 오는 아침, 때마침 하우스로 일하러 가시는 "들꽃만남" 전 회장님이신 허정자 회장님을 만났다.

선생님 : 회장님 안녕하세요.

나 리 : 저 할머니 누구신데요?

선생님 : 오응, 저 할머니는 우리 어린이집을 만드어주신 분이야.

나 리 : (심각한 얼굴로) 그런 단군할아버지하고 같이 만드었어요?

선생님 : !!! (웬 단군할아버지)



이야기 세개 - 승훈이의 찻날 보내기

새로 들꽃 친구가 된 승훈이가 하루 꼬박 엄마한테 가자면서 울며 보냈다. 하루종일 부엌에서 선생님 뒤편 졸졸 따라 다니며 보채던 승훈이,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가시자

승훈이 : 선생머 어디 가노?

선생님 : 뭐라구?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승훈이 : 선생머 오데 갔니꺼?

맛있는 간식 시간

선생님 : 승훈이도 가서 간식 먹자.

승훈이 : 나는 아지매하고 같이 먹으꺼다.

이야기 넷 - 부끄러운 영님들

햇님반 형님들은 가끔씩 장난이 너무 심해 달님반 동생들 보기 부끄럽게도 선생님께 벌을 받곤 한다. 그날도 이제 그만 놀이감을 치우자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선생님 : 자..... 득꽃 친구들 가지고 놀면 놀이감 치웁시다.

들꽃친구들 : (우당탕 탕.....)

선생님 : 놀이감 깨끗이 정리할 때까지 간식 안 먹으꺼예요.

들꽃친구들 : (그래도 우당탕 탕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다)

경환이 : (혼자 놀이감을 치우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님들아! 빨리 치우자.

간식을 안 먹는다는 선생님 말씀이 경환이에겐 제일로 큰 벌이었을까?

■ 탁아계풍향

◀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교사의 올바른 자질향상과 재교육의 장으로 '보육교사 여름연수'를 개최한다.

일 시: 8월 1~2일, 3~4일 1박 2일로 2회 진행
장 소: 경기도 공릉입구 흥원연수원

내 용: -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배우기
-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 환경구성워크샷
- 몸으로 느끼는 우리 가락
- 동화언어 활동지도
- 영아중심교육활동
-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지도
- 교사의 자기 관리법
- 전시프로그램

대 상: 전국 보육시설 보육교사 선착순 5백명
참가비: 1인 4만원
문 의: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02) 793-0115

◀ 한국 기독교 유아교육연합회 아기교사 연수회

일 시: 8월 16일~18일
장 소: 연동교회
내 용: - 도덕성 회복과 유아교육의 역할
- 청소년 범죄예방과 유아교육의 역할
- 새 교육과정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 계절별 유아의 음악놀이
- 유아의 도덕성발달과 부모의 역할
- 유아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교수전략
- 유아의 종교체험
- 계절별 신체표현 및 포크댄스

준비물: 필기도구, 실내화
회 비: 3만5천원

(점심, 교재대 포함, 워크샵 재료대 별도)
문 의: 연합회 이정례 회장(02)452-1077
김숙교 총무(02)738-8577

◀ 제5기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2급자격 연수

일 시: 7월 31일 ~ 8월 4일
장 소: 본 회 연수원
내 용: 레크리에이션 개론, 상황댄트법, 레크리에이션 댄스, 심혈관 지도법, 전통프로그램 등 25개 과목
접수 및 문의: (사)한국놀이문화협회 서울지부
(02) 557-4682/3

◀ YMCA사회교육부 유아실기교육

일 시: 8월 26일
장 소: YMCA 2층 대강당
내 용: 손유희, 음악놀이, 유아리듬체조, 교육무용, 자율적인 신체표현, 레크리에이션, 포크댄스
참가비: 1만원(교재, 테이프비 2천원 별도)
문 의: YMCA사회교육부 주간 (02)732-8757,
야간 (0343047-9457)

◀ 민예중 문예아카데미 여름 강좌 안내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는 문화예술 강좌인 문예아카데미를 통해 예능교육 강좌「우리 아이 예능교육 어떻게 시킬까?」를 마련하였다. 이 강좌는 현행 아동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주로 학부모나 예능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다.

일 시: 7/24~8/28 매주 월 오후 2시~4시(5주)
장 소: 종로구 낙원동 소재 민예중 강당
수강료: 2만원
내 용: 7/24 바람직한 예능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이오덕-아동문학가)

7/31 무용교육의 문제점과 대책(김선희-무용평론가)

8/ 7 미술교육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노수산-아동미술교육가)

8/21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방향(김춘미-한국예술연구소 연구원)

8/28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김복춘-아동문학가)

◀ 방통대 제16회 유아교육과 세미나

1. 일시 및 프로그램 내용: 8월 5(토) - 6(일)
일(토) 13:00-13:30 접수 및 등록
13:30-16:30 표현생활 영역의 접근방법
6일(일) 09:00-12:00 유아기 음악적 개념과 음악활동
13:00-16:00 유아미술활동
2. 장 소: 방통대 서울지역 학습관
3.대 상: 방통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및 졸업생
4.회 비: 13,000원
5.참가인원: 선착순 250명
6.개인준비물:
5일(토):표현생활-색도화지 8절 4장(색상무관), 풀, 가위, 싸인펜 혹은 색연필
6일(일):음악활동-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리듬박대
미술활동-신문지 10장, 스킵치테이프, 색종이, 풀, 가위
7.신청방법: 온라인입금(접수자 성명 기입)
우체국 012252 - 0060198 한송이
8.신청기간: 7월 5일(수)~7월 31일(월)
선착순 250명(행사 당일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
행사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음.
9.문의사항: 학과사무실(7404-670), 학생회 사무실(7404-774)

◀ 7월 연합회 구비 도서목록

서울시청뉴스 제26호 95.7.13. / 서울특별시학부모신문 95.7.5.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우리아이 우리엄마 95.6 /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보육시설장 자격 교육교재 /
국립사회복지연구원
한국 사기업 의사결정과 여성참여 /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여성정책연구 95. 여름호 / 여성정책연구소
그루폴 95.7. / 참교육시민모임
전교조신문 95.7.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신문 95.7.7
노동자신문 95.7.25
유아교육신문 95.7.17
협동조합 우리건설 95.7.4
월간 말 95.8.
함께걸음 95.7.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95.7,8월호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행복의 샘 95.7 / 농민신문사

진달래어선어집, 등꽃어선어집, 새터어선어집,
다우리어선어집, 어깨동무어선어집 희지를 받
았습니다.

본 연합회에 희지나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실에서 희망하는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과 소식

- 교사조직과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진행

7월 8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지탁연 회원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월례회의 3차례 강의에 이어 월례회 논의를 정리·발제하고 소모임 조직 사례, 교사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소모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되었다.

애초 소모임활동가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직 소모임이 조직된 곳이 많지 않아 현단계로 짚어보고 지역별 상황을 교류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마련하였다.

소모임 조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는 시간이 있어서 참여한 회원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반면 교사조직과 소모임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소모임추진위는 교육을 끝으로 모임을 해산하고 이후 소모임 관리체계나 교사회 추진위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도집회 참석

지난 7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도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대회'에 본 연합회에서 참석하였다.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종

묘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1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희생자에 대한 분향을 한 후 부실공사 추방과 부실공사 책임자 및 정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 그림책 소모임 공개강좌

7월 20일 오후 6시 그림책 소모임에서는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과 좋은 그림책에 대한 강연을 어린이도서연구회 그림책분과장 이성실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모임 성원이 아닌 교사들의 참여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선생님들의 참여가 없어서 준비한 소모임 성원들은 모두들 서운했습니다.

- 자원활동가 아유외 다녀와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6월 28일 국민대, 이대, 중앙대, 숭실대, 동덕여대 등에서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아유회를 가졌다. 비록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머물어서 시간을 가졌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생활하는 자활가들이라서인지 아이들 못지 않은 촌스러운 감탄사들을 동물들에게 마구 보내며 아주 즐겁게 지냈다.

뒷풀이를 한밤중까지 거하게 치루느라 그 후유증에 다소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아무런 고민없이 편한 마음으로 바깥바람을 쐬고 왔다는 사실에 모두들 호뭇하였다고 한다.

사람들

* 출산하셨습니다.

구로지역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서울민보련 사무국장으로 활동의 장을 옮긴 박상희선생님이 7월 6일 자신과 너무 닮아 '풀빵'이라는 애칭이 붙은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에 앞서 7월 3일이던가요? 정확한 날짜를 미처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다우리 어린이집의 백혜영선생님도 역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 이전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용자를 받아 아주 넓고 산뜻한 공간으로 용기종기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식은 7월 22일 진행했구요, 바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1-16 용기종기어린이집
(0331)294-3877(전화번호 불변)

연합회 7월 일지

6 / 26 자활회의

28 자활아유회

민간운영팀 모임

29 서경지대의

30 소모임추진위

7 / 1 교육연구부 모임

2 어린이사랑방 10주년 개원잔치

3 민보련 교사연수 강사 섭외

4 민보련 사무실 연수기획회의

6 삼풍사태 집회

교육연구부 모임

7 그림책 소모임

여연 정사위

8 교사조직과 소모임 활성화를 위

한 회원 교육

12 편집회의

13 서경지대의

14 소모임활동가교육

15 연수원 답사

18 지방지대의

교사연수 기획회의

20 집행회의

여성평회의 집 정기이사회

그림책 소모임 공개강좌

21 편집회의

22 교육연구부 정기모임

교사연수 기획회의

25 소모임추진위

27 서경지대의

31 자활회의

■ 베품시장

* 베품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일이나 함께 하고 싶은 모임, 물론 교환 등 여러분의 각종 정보를 본당과 내용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자 하는 분은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교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한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아끼는 게 별건가요? 농촌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재정이 안정되면 그것도 농촌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첫술 언제요?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첫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세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대금미납하신 분들은 속히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좋은 사람 하나 없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네요. 우리가 그토록 인기 없는 줄이야... 어린이집 회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편집부도 훨씬 밝아졌어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더군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높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이전을 축하합니다.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이 국민연금 융자를 받아서 아주 아주 넓은 곳으로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용기종기 식구들 만류이 못되었지만 지택연의 모든 식구들도 용기종기의 이전을 기뻐하며 더욱 활기찬 활동을 보여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축하해요!!!	개리 모음, 글 모음 "우리네 아이들"을 채워줄 귀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보고 느끼신 거나 보육활동을 하면서 제기되는 생각들, 기타 모든 내용을 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글로 써주시면 더없이 고맙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판매가는 할인되지 않지만, 신청하신 회원들(자료회원 포함)에게는 무료발송을 해드립니다. 7,8월호 소개책자: 짹짹 나무늘보야 해엄쳐 사리 기타 이전에 소식지에서 소개되었던 그림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오윤정 교육부장
◆ 자원활동가 여름합숙 또 일을 벌였습니다. 자원활동가 합숙이 잡혔습니다. 날짜는 8월 12-13(금,토)일, 장소는 새터! 지난 준비회의에 참석치 못한 단위는 연합회 사무국 황미혜 간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하려면 이 책은 있어야...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책인판매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석무 저, 해화당출,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구입을 하면 됩니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이번 7,8월호는 합본호로 발간됩니다.

이번 [우리네 아이들]은 7,8월 합본호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고자 다음 9월호부터는 월초발행으로 발간시기가 당겨질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는 회원 여러분의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는 [우리네 아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 김요, 최경애, 이영혜(재구독) 님,
1년 : 꾸러기동산어린이집, 이순진, 김주숙, 김삼순 님

의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내용을 받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정말 오랜만이다.

따가운 햇살이 이리도 고마울 줄이야. 나의 흥분된 독설이 저 햇빛에 뽕뽕송송 말려져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다.

- 혜민

* 여름철에 감기 조심합시다!

- 미양

* 살아있음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드려야 할 때가 요즘인 것 같다.

나의 지인들의 무사함에 감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론 나만의 자기만족인 것 같아 씁쓸하다.

- 미혜

여운칩니다.

머운 가운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 고생이 많으실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웃음이 계속한다면 머워도 무려가겠지요.
휴가들도 잘 다녀오시구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작/역/사/화/탁/아/△/연/업/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묶은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7월 28일

판매가 : 3,000원